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2월 26일) 2021년 4월 7일 수요일



十方은 화장(華藏) 중 바야흐로 봄이다. '봄' 하면 꽃이다.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피는 꽃은 육법공양 중 하나일 만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함께 값진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하 수상한 시절에서 피는 꽃이기에 그 의미가 새삼스럽다. '꽃도량' 통도사 극락암에도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홍교 앞 벚꽃이 도량을 장엄 중이다. 추운 겨울을 지나온 꽃들이 시방을 장엄하는 오늘, 힘겨움으로 가득한 시절을 지나 꽃처럼 환한 시절이 오기를 서원한다. **글=박재완 기자,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백성욱 금강산 수행, 최초 사부대중 결사"

김광식 교수, 민족사상 15권 기고 논문서 주장

1930년 금강산 입산 10년 수행
수행과정 · 내용확인 자료 발굴
표훈사발행 잡지인 〈금강산〉서
백성욱 금강산 수행 내용 기록
공동체명칭 '선불장'서 첫 확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현대 불교 선지식인 백성욱(1897~1981) 박사의 10년 금강산 수행의 전반적인 전모가 확인되는 자료들이 확인됐다. 특히 백성욱 박사의 수행공동체가 자체 규칙을 갖고 자급자족한 최초의 '사부대중 수행결사'이며 그 명칭이 '선불장'임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한국민족사상학회에서 발간하는 〈민족사상〉 제15호에 연구논문 '백성욱의 금강산 수행 공동체 역사와 성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표훈사가 발행했던 잡지 〈금강산〉을 비롯해 문집류, 구술 인터뷰를 종합해 백성욱 박사가 10년간 진행했던 금강산 수행의 전모를 밝혔다.

그간 백성욱 박사의 10년 금강산 수행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졌지만, 정확하게 언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연구되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자신이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6하원칙에 맞춰 백성욱 박사의 10년 금강산 수행을 조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백성욱 박사가 금강산에 입산한 시기는 1930년이다. 백성욱 박사는 독일 유학을 마치고 1925년 귀국해 1928년 4월부터 중앙불전(현 동국대)에서 강의했고, 7월부터는 불교사 논설부에 근무했다. 1929년 1월 3~5일 열린 승려대회서는 종헌 · 종법 제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민족운동 성격이 강했던 탓에 일제의 감시를 겪었고, 심신을 안정시키고자 사찰을 순례했다. 그해 가을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백일 기도에 들어갔고, 이후 서울로 상경했다가 1930년 초반 금강산으로 입산한 것으로 김 교수는 봤다.

백성욱 박사의 10년 수행이 마무리된 것은 '일제 탄압'이라는 외부 요인이 컸다. 백성욱 박사가 1974년 〈법시〉에 남긴 회고에 따르면 1938년 왜경이 박사를 사이비 종교인으로 몰아 체포했고, 이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수도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김 교수는 "백성욱은 1928년에 금강산 장안사에서 수행을 잠시 했지만, 본격적인 수행은 1930년 5월 무렵부터"라며 "백성욱과 손혜정, 김기룡은 의령 경찰서에서 70일, 진주 검찰청에서 1주일간 구속당했지만 불기소처분으로 금강산으로 돌아왔다. 당시 일제는 백성욱의 수행 공동체를 해체할 것을 명령했고, 그래서 수행 공동체는 1939년 해산됐다"고 밝혔다.

백성욱 박사의 수행 장소는 장안사 말사인 안양암과 지장암이었다. 정확하게는 안양암은 여성 전용 선방이었고, 백성욱 박사는 거처를 지장암으로 옮겨서 정진을 이어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초창기는 백성욱 박사의 개인 수행 차원에서 안양암이 활용됐지만, 가르침을 받겠다는 대중이 10여 명으로 늘자 지장암으로 이전했다. 기존 안양암은 수행 도반이었던 손혜정이 이끄는 여성 선방이 됐다"며 "백성욱은 손혜정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양암과 지장암을 모두 관리했다. 안양암과 지장암은 백성욱 수행공동체의 회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까. 김 교수에 따르면 백성욱 회상에서 수행한 김기룡은 지장암에 30명, 안양암에 15명이 항시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를 볼 때 10년의 수행기간 동안 수 백명의 인원이 백성욱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행 방법에 대한 재발견도 이뤄졌다. 백성욱 박사는 초기에는 개인 기도에 몰두했지만, 회상에 대중이 늘며 수행 수칙을 정했다. 그는 대중에게 기도, 염불, 간경, 참선을 강조했으며 초기 입산자 모두에게 백일기도를 시켰다. 염불은 〈화엄경〉을 부르게 했다. 경전 공부는 법사인 백성욱, 손혜정의 법문을 듣는 것으로 대체했고, 참선은 조석으로 항상 하도록 주문했다.

대중 일상생활에 수칙도 이번에 새롭게 재발굴됐다. 〈금강산〉 8호(1936)에 게재된 '지장암에서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 지장암의 일상 생활이 기록돼 있다.

대중은 오전 4시에 기상해 아침 정진을 한 이후 9~10시 일종식 아침 공양을 한다. 오후에는 농사, 땔감 모으기, 운력 등이 이뤄지고 저녁 정진이 진행된다. 여기서 당시 백성욱 박사 회상의 공동체 명칭이 확인되는데 '선불장(選佛場)'이다. 이들은 정진 5시간, 노동 5시간, 설교 3시간, 자유 7시간이라는 공통된 수행 규칙을 갖고 있었다.

김 교수는 "금강산에서의 수행 공동체 생활은 백성욱의 제안과 지침에 의거해 철저하게 실시됐다"면서 "이에 따라 금강산 수행은 선불교적, 결사적 성격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선불장'은 결사 단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자급자족을 하면서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는 백성욱 박사의 '선불장'이 최초이자 유일하다"면서 "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구니회 6년만에 선학원 대응기구 구성

전국비구니회, 14차 총회서 전담TF 결의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산하 기구로 선학원 문제를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키로 결의했다.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문제와 관련한 공식 논의기구를 구성한 것은, 지난 2015년 선학원 대책위 출범 이후 6년 만이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9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보보고 안건으로 선학원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를 상정한 데 이어, 선학원 문제와 관련한 전담기구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 감사이자 조계종 선학원대책위원회 위원인 심원 스님은 "종단과 선학원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바로 비구니스님들"이라며 "비구니스님들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비구니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원 스님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 사찰 중 선학원 분원으로 등록된 수는 360여 개, 이 중 명의등록까지 포함하면 약 600개에 달한다.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소임자 스님들은 물론 소속 비구니 스님 중에서 선학원 분원 소속이거나 도제 스님들이 상당히 많다"며 "선학원 문제가 현재 드러난 현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전국비구니회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로 잠재돼 있다고 보여진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분원 상당수가 비구니 사찰들"
비구니회 존속 위협 잠재 요소
4월 30일 수행공동체 결사도

향후 구성될 선학원TF는 종단과 선학원간 관계 속에서 분원 소속 비구니스님들의 입장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 등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회장 본각 스님과 운영위원장, 총무부장 스님이 당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회장 본각 스님에게 위임했다.

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소속 사찰이 선학원에 등록된 분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에 선학원 문제는 전국비구니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사안"이라며 "시도하는 마음으로 종단과 선학원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구니 수행공동체 결사에도 착수한다. 전국비구니회는 4월 30일 비구니 수행공동체 결사에 입재하고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고 정진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제개정과 선거법 제정, 2021년 사업 및 예산심의의 건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또 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난해 사업 결과보고와 명사추천 결과보고, 인도 부다가야 보건소 건립 경과보고, 화관 보수 불사계획 등을 보고했다. 또 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또 전국비구니회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후원금 모연 및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국비구니회 지회장회가 3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에 앞서 봉덕사(주지 혜욱)와 휴휴정사(주지 수경)가 각 100만원씩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대한불교조계종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www.buddhism.or.kr

新불교교재 〈불교개론〉 발간 본격화

조계종교육원, 3월30일 교재편찬위원회 발족해

올해 교육원 추진 중점 사업 일상 언어 풀어낸 개론될 듯 출 · 재가위원 11인으로 구성 "성찰로 수행발심 이끌 교재"



조계종 교육원은 3월 30일 새로운 불교개론 편찬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사진은 발족식 직후 가진 기념사진 촬영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교육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의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새로운 불교개론서 발간이 본격화 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교재 편찬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교재 편찬은 승가교육기관 필수 교재인 새로운 〈불교개론〉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원이 새로운 〈불교개론〉 편찬에 나선 것은 기존 개론서가 단순 교리 전달에 머물고 있고, 서술이 현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승가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 등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대적 불교개론서를 발간해 불교의 핵심적 가치를 사부대중에게 전하겠다는 게 교육원의 목표다. 또한, 승가 기본교육기관 필수과목 교재로 활용하며 현대적 승가상 정립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열린 교육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요사업으로 소개된 바 있다.

새로운 불교개론서 편찬에 대해 당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기존 개론서는 옛날 언어에 맞춰져 있어, 기초적인 교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대적 언어와 사고로 정립한 불교 개론서를 발간해 승가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일반 대중도 해당 개론서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일상의 언어를 불교에 적용해 새로운 불자상, 승가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한국불교는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총 11명의 출 · 재가자가 편찬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에는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부위원장은 교육부장 서봉 스님 · 불학연구소장 보문 스님이 맡았다. 출가자 위원으로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덕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오인 스님, 해인사 학감 법장 스님, 운문사 교수 원법 스님이 참여하며, 재가자 위원으로는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박찬욱 동국대 불교상담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발족식 이후 편찬위원들은 1차 회의를 통해 〈불교개론〉 편집 방향과 추진 일정들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중도 · 연기적 가치관 입각해 불교를 조망하는 것을 비롯해 △21세기 선의 가치와 지향점 제시 △사회적 고통에 대한 동체대비적 삶의 지향 △자연환경과 생명 강조 △승가공동체, 사부대중 공동체 강조 △현대적 계율관(윤리관) 제시 등을 편집 방향으로 정하기로 했다.

각 장마다 주요 개념에 대해 알기 쉬운 경전 자료나 조사어록, 현대 인문학 · 자연과학 등을 예시 자료로 들어, 이를 토대로 논의 · 성찰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편찬위원회는 4월 중 집필진을 선정하고 집필 의뢰를 마친 뒤 원고 마감과 디자인 작업을 거쳐 12월 중으로 〈불교개론〉을 발간한다. 이후에는 각종 승가대학 교재들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편찬추진위원장 진우 스님은 "현재 불교는 출가자, 불자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새로운 불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대인 스스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불교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성찰을 통해 그 내용을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로운 〈불교개론〉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종사 법계 심의할 원로회의 개최

조계종, 4월8일 66차 소집공고 백양사 성오 스님 의원 선출도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를 위한 원로회의가 4월 8일 열린다. 이번 원로회의에서는 신임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성오 스님에 대한 선출 논의도 진행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최근 제66차 원로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4월 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대종사(비구) · 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 신의의 건과 신임 원로의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다룬다.

신임 원로의원 후보는 나주 심향사 주지 성오 스님(제18교구 백양사)이 추천됐다. 중앙종회는 지난 3월 23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4월 14일자로 임기만료되는 원로의원 암도 스님의 후임으로, 성오 스님을 만장일치 추천했다.

원로의원은 원로회의법에 따라 중앙종회 추천으로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도 진행된다. 심의 대상자는 중앙종회가 제220회 임시회에서 추천 동의한 대종사 22명 · 명사 7명 등 총 29명이다.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 명사 법계는 법계법에 따라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종정 스님이 품서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교구 화엄사 주지에 덕문 스님 임명

"신도시포교 · 선암사 문제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3월 31일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에 덕문 스님을 임명했다. 〈사진〉

원행 스님은 임명장을 전달한 후 "교구 스님들에 대한 승려복지에 대해 많은 배려에 노고가 많다"며 "앞으로 신도시 포교를 비롯한 교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 또한 인접해 있는 선암사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이에 덕문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의 배려 덕분에 교구 스님들이 안심하고 공부에 정진할 수 있었다"며 "지역포교가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암사 정상화에 대해서도 "선암사 주지 소임을 맡은 적이 있었던 마큼,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한편 덕문 스님은 이날 아프리카 보리가람농업기술학교 발전과 자비나눔, 승려복지기금으로 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했다.

송지희 기자

4.7보궐 종교중립 촉구

종평위, 3월 25일 공문 발송

4월 7일 예정된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편향 예방에 나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3월 25일 선거에 참여한 주요정단과 후보, 관할 지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종교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문은 선거를 앞둔 후보자와 당선자를 대상으로 정교분리 원칙 준수, 그리고 종교간 차별과 혐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발송됐으며, 관할 선관위에는 종교갈등을 부추기는 후보자들의 발언이나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이번 보궐선거가 상호공존과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중앙권한 지방교구청으로 점진 이양"

도진 정사, 3월 31일 간담회서 경북교구 신설로 8개교구 전환



"중앙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지방 교구청과 심인당(사찰) 중심의 포교 교화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통리원장 도진 정사〈사진〉는 3월 31일 서울 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방 교구청과 심인당으로의 권한 이전을 천명했다. 실제로 진각종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교구로의 권한 이양이다. 특히 대구 교구를 대구와 경북 교구로 나눴다. 지난 2월 경북 교구의 신설로 대구 교구 산하 35개 심인당 중 14개 심인당이 경북 교구로 분할되면서, 기존 7개 교구에서 총 8개 교구 체제로 전환했다. 진각종단의 첫 교화 출발지인 대구 교구는 종단 각 교구청 가운데 가장 범위가 넓어 이번에 교구를 분리함으로써 교구청과 각 심인당 간 소통 거리를 좁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포교 교화가 활성화 되려면 교구청과 심인당 중심으로 바뀌어야 종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평소 생각해 왔다"며 "70년 넘게 중앙 통리원에 집중된 권한들을 지방 교구청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택트 코로나 시대 포교와 교화의 생존 전략을 묻는 질문에 도진 정사는 "우리 진각종은 다행히도 심인당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각 가정서 불사와 불공을 하는 전통 수행법의 체계가 확립돼 있어 타격이 덜 하다"며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라이브 불사 등을 준비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도진 정사는 "코로나 사태가 꼭 아니더라도 현대사회서 미디어 영상 포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종단도 미디어 영상 포교에 집중 투자 육성해 전법 교화에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진 정사는 "앞으로 재가 신교도 모임인 총금강회의 위상을 높이고 교화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예산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며 "총금강회의 종단 운영 참여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기획위원회에 총금강회 신도 3명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진 정사는 종조인 회당대종사 탄신 120주년이 되는 내년에 종조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의 성역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코로나 안정돼 봉축 의미 확산 기대"

김제남 수석, 원행 스님 예방서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전한데 이어,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원만한 봉행을 위한 코로나 안정을 발원했다.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3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 또 "내일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올해 연등회가 유네스코 지정 이후 첫 개최인만큼,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상황이 안정돼 봉축행사가 더 큰 의미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도 "정부가 코로나 이후 잘 대응해 왔는데 백신 접종이 늦어져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시작된다니 다행이다"며 "불교계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특별히 더 신경써서 방역지침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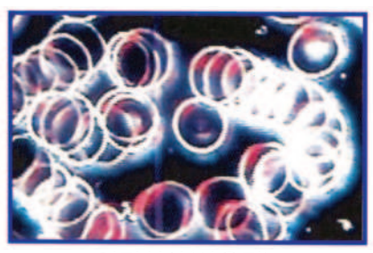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국민건강 · 인류건강을 위한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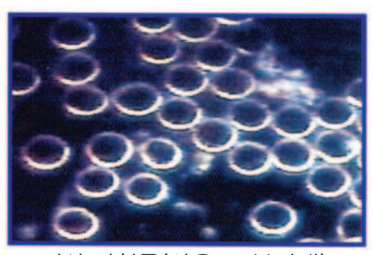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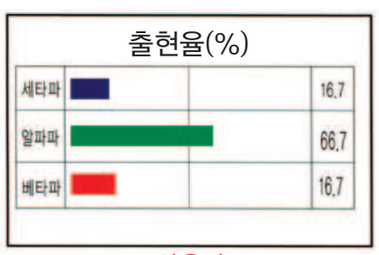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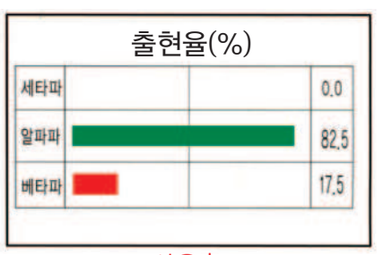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 혈액건강 ◈
◈ 두뇌건강 ◈
◈ 세포건강 ◈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미얀마 평화 위해 입국 신청한 스님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사노위 지몽·혜도·종수 스님
4월 1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미얀마 특별입국 신청서 접수
부처님 성지 쉐라곤 파고다서
"온 몸 던져 평화 발원하겠다"

"부처님의 성지 쉐다곤 파고다에서 온몸을 던져 평화를 발원하겠습니다. 군인이 든 총이 연꽃으로 화하고 고통의 현장이 다시 자비의 세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미얀마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촉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어린아이까지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사태가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스님들이 미얀마를 직접 방문해 평화를 발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4월 1일 주한미얀마대사관에 '미얀마에 평화가 오길 기원하는 기도를 위한 특별입국'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별입국을 신청한 스님들은 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혜도 스님, 종수 스님 등 세명이다.

쿠데타 발생 이후 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미얀마 평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희생자 추모기도, 오체투지기도회 등을 이어왔지만, 한국에서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직접 고통의 현장을 찾기로 한 것.

스님들은 부처님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에서 미얀마 평화를 발원하는 기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쉐다곤 파고다는 부처님 생존시 머리카락이 봉안된 곳으로, 미얀마인들은 물론 전세계 불자들이 참배를 위해 방문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4월 1일 미얀마 특별입국 신청서를 접수했다.

스님들은 특별입국 신청서 접수에 앞서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 취지를 밝혔다. 특히 "미얀마 입국신청은 단순한 시도의 차원이 아니라 신중한 논의를 거쳐, 확고한 의지를 모은 결과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고 미얀마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밝혔다.

지몽 스님은 "그 어떤 나라보다 자비롭고 평화로워야 할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가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가득차 있다"며 "극도의 공포와 슬픔, 분노, 고립감에 휩싸여야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미얀마 국민들을 생각하면 수행자로서 자책감에 숨을 쉬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이어 스님은 "UN이 한낱 국제시민단체로서 역할에만 머무르는 실정에 미얀마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은 비탄에 빠져 있다"며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온몸이 부서지는 날까지 평화를 발원하는 기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얀마대사관이 수행자들의 평화기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이라 믿기에, 가장 빠른 시간 내 입국이 가능하도록 허가해 달라"며 "한국 정부 역시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을 이해하지만 불교수행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외면할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니 이해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혜도 스님도 "쉐다곤 파고다에서 올리는 평화기도가 미얀마의 모든 분들이 적의를 멈추고 군인과 노동자, 시민 모두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군인이 손에 든 총이 연꽃으로 바뀌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무릎이 닳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올리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지몽 스님이 대사관에 신청서를 전달하는 동안, 스님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미얀마 평화를 발원했다.

한편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를 발원하는 한국불교계의 움직임도 큰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매주 토요일 샤카디타코리아, 불교여성개발원과 함께 서울지역 사찰에서 미얀마 평화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는 한편, 미얀마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도 진행 중이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얀마 평화를 기원하는 챌린지를 진행해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내고 있으며, 태고종 국제구호단체인 (사)나누우리(이사장 도산)도 미얀마 민주화 항쟁 지지운동의 일환으로 세손가락 경례뱃지를 제작해 나눔을 통한 모금에 착수했다.

고산당 혜원대종사 영결식…'빛을 잃다'

3월 27일 쌍계사 도원암 앞 광장서

우중에도 사부대중 모여 애도
"가르침 따라 정진 이어 갈 것"

쌍계총림 방장 고산당 혜원 대종사의 영결법요식이 3월 27일 쌍계사 도원암 앞 광장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명종 5타로 시작해 △삼귀의 △동주 스님, 선훈 스님의 영결법요 △문도대표의 헌다 및 헌향 △한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행장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중들은 고산 스님의 육성 법문을 들으며 끝까지 정진을 당부한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영결사에서 "언제나 멈추지 않는 법륜처럼 손 안에서 돌아가던 큰 염주가 이제 큰스님을 따라 적정부동(寂靜不動)의 경계에 들었다"며 "대종사님께서 남겨 주신 염주는 저희들에게 수행과 전법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무언의 부촉일 것이다. 저희들은 대종사님께서 부모미생전의 소식을 다시 세상에 펼칠 인연을 일구월심 기다리며 오늘의 아쉬움을 달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은 "이제 자애스러운 모습과 대방무외(太方無外)한 선지(禪旨)와 대기대용(大機大用)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누구에게 생사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물어야 하고 격외의 진수를 배워야 합니까?"며 안타까워했다.


쌍계총림 방장 고산당 혜원 대종사의 영결법요식이 3월 27일 쌍계사 도원암 앞 광장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이어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영진 스님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조사도 이어졌으며 문도를 대표해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참석 해 준 모든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오직 정진으로 스님의 은혜를 갚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결식이 마치자 지리산을 덮고 있던 봄꽃마저 색을 잃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만장기를 든 사부대중은 법구 이운에 앞서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으며, 법구는 고산대종사가 평소 아꼈던 쌍계사 차시배지와 콩밭, 꽃길, 목암마을 등을 지나 마지막으로 연화대에 안치됐다. 거화의식이 진행되자 대중들은 오열했고 "큰 스님 불들어갑니다"며 소리쳤고 대자비심으로 속환사바 해 불일(佛日)을 밝혀 줄 것을 기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KCRP, 환경문제 각 종교계 공동 대처 결의

3월 25일 정기총회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원행, 이하 KCRP)가 올해 생태·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KCRP는 3월 25일 한국의 집에서 공동회장단 회의 및 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생태·환경 문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종교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 종교계는 환경문제에 공동대처키로 결의하고, KCRP 올해 사업에 생태·환경 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KCRP 대표회장 원행 스님과 각종교 지도자들.

또 남북평화를 촉구하는 KCRP의 서신이 WCRP를 통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날 공동회장단 회의에는 KCRP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공동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천도교 송범두 천도교 교령, 김희중 천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개회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인 각 종교 수장들께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을 희망의 길로 이끌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져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민추본, 통일기금 마련 위해 후원사찰 협약

3월 26일 인천 능인사 첫 협약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가 통일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사찰 확대에 나선다.

민추본은 3월 26일 인천 능인사(주지 지상)에서 첫 후원사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사업 기금을 적립해 안정적인 통일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민추본의 제1호 후원사찰인 능인사는 사무총장 지상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첫 후원사찰로 포문을 여는 한편, 후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본부장 월우 스님은 "후원 사찰·회원 조직 확대는 민족 화해와 통일정토 구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능인사를 시작으로 통일정토를 향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원력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상 스님은 "한반도 상황이 장기간 경색돼 있어 원활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내실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며 "후원사찰·회원의 조직화를 통해 민추본이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佛性 자리에서
受戒 共同體를 이루는
수계 공동체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입재 2021년 4월 16일(음 3.5) 금요일
회향 2021년 4월 18일(음 3.7) 일요일

※ 보살계산림은 매일 9시 30분에 봉행되며, 오후에는 없습니다.

동참금 | 5만원 접수처 | 화엄전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차량안내 |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 앞 오전 8시~9시

공석된 총무원장…법화종 정상화 기로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
당선무효·직무집행 정지돼
종정인 도선 스님, 3월 31일
원장 서리에 혜문 스님 임명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원이 자격 논란이 거셌던 법화종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무원장이 또다시 공석이 됐다. 법원 결정시까지 거암 스님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을 보류했던 종정 도선 스님은 가처분 인용 직후, 사태수습을 위해 경주교구원장 혜문 스님을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총무원장 도성 스님의 법정구속 이후 지속된 법화종 혼란이 이번에는 안정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종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은 3월 31일 경주교구원장 혜문 스님을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했다. 도선 스님은 공문을 통해 "제20대 총무원장 당선인 거암 스님에 대한 임명을 중지하고 종법(총무원법) 제9조에 의거해 혜문 스님을 서리로 임명한다"며 "6개월 간의 서리 설치기간 동안 제20대 총무원장이 중대한 하자 없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해 종단 혼란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 달라"고 하달했다. 원로원과 중앙종회, 각 교구종무원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종정 스님이 총무원장 서리를 임명함에 따라 거암 스님 직무정지 이후 공백상태가 된 법화종 총무원은 서리 체제로 전환해 종무행정 및 제20대 총무원장 선거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무원장 서리 임명에도 법화종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혜문 스님이 3월 31일 법화종 총무원청사를 방문해 서리 임명 사실을 공표하고 인수인계를 공식 요청했지만, 기존 집행부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혜문 스님은 이날 "직무집행이 정지됐음에도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간주하겠다"며 총무원 청사 퇴거 요청과 함께 문서 파괴 및 서류 유출·반출 행위가 있을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청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종도들에게 발송된 문자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과 거암 스님측 집행부 대표 송원(정창수)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며, 성운 스님이 입법부, 송원 스님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됐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종헌종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조직인데다, 위원장 중 한명의 전과기록과 2020년 하반기까지 이중승적을 유지했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무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지성 스님(대구 선불사 주지)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종법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중앙종회의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중앙종회의장이 위원장인 것은 말도 안된다"며 "회의에 참석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향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성 스님은 혜문 스님의 서리 임명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혜문 스님이 선거관리위원으로 거암 스님의 선출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혜문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심사를 보다 명확히 해 막았어야 할 현 사태를 막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책임을 통감해 당선인 집행부 참여를 고사했었고 서리직 역시 고사했지만, 책임은 혼자 참회하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종정 예하의 무거운 가르침에 발심하게 됐다"고 참회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종정예경실은 거암 스님에 대해 종정 스님에 대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쪽방촌에 전해진 자비의 마스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3월 30일
영등포 쪽방촌에 마스크 전달
잡매니아 10만장 기부해 진행
코로나 방역 기부 최대 규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신종철 잡매니아 대표가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어르신, 마스크를 안쓰셨네요. 없어서 그러신가요?"

"없어요.."

"어르신, 이제 마스크 꼭 쓰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3월 30일, 방역 사각지대인 쪽방촌에 마스크가 전달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인)은 3월 30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마스크 전달식과 함께 직접 쪽방촌을 누비며 마스크를 전했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는 총 10만장으로 경호 경비서비스 업체인 잡매니아(대표이사 신종철)가 기부한 것이다.

불자인 신종철 잡매니아 대표이사는 "공사현장 경비 등을 맡는 특성상 어려운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동안 20년간 쪽방촌을 도와왔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마스크를 지원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보인 스님과 신종철 잡매니아 대표이사가 찾은 쪽방촌은 한평 남짓한 곳으로 모두 마스크가 없다고 했다. 구청 등에서 마스크를 조금씩 지원하지만, 수입이 거의 없는 이들에겐 마스크를 구하는 것 또한 일이었다.

마스크 박스가 쌓인 곳에는 쪽방촌 주민 6~7명이 나와 나눠주는 것이냐며 관심을 표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거나, 빨아서 쓸 수 있는 면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박부득 쪽방도우미봉사회 팀장은 "같은 마스크를 계속 쓸 수 없기에 코로나 감염 등이 걱정 됐다"며 "잡매니아에서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재단은 코로나 방역 기부로는 최대 규모라며 감사를 표했다.

보인 스님은 "어려울수록 나눔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내줘 우리 사회가 밝음을 지향해 가는 것 같다. 오늘 기부받은 10만장은 복지재단에서도 큰 힘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어려운 곳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는 쪽방촌에서 급식봉사 등을 하는 사단법인 쪽방촌도우미봉사회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광진노인보호센터 등 8곳에 배분돼 소외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김선옥 신임 원장이 4월 2일 취임식에서 불교여성개발원기를 흔들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선옥 제11대 원장 취임

4월 1일 새 집행부 구성해
포교원과 갈등 불씨 '여전'
'정관 개정' 화합조건 제시
"시간두고 논의 진행할 것"

불교여성개발원 제11대 원장에 김선옥 前(사)지혜로운여성 이사가 취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 1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김선옥 신임 원장은 "조계종 포교원과의 관계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서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여성개발원의 전국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 방침을 밝힌 김선옥 원장은 "'나' 보다는 '우리'란 말을 기억하고 모두 큰 마음이 되어 '우리' 되시길 부탁드린다. 우리의 공동목표인 지혜롭고 자비로운 단체가 되어 불법 확산과 불교여성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부원장 임명장 전달을 시작으로 새로운 임원진도 꾸려졌다.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조계종 포교원과 갈등을 빚어 온 불교여성개발원이 종단과 화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포교원은 신임원장 후보의 포교원 예방 자리서 2019년 4월 이사회서 결의한 정관 개정과 원장 선출이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갈등해소 방안으로 6개월 내 정관의 원상회복을 공표할 것을 불교여성개발원에 전달한 상태다. 불교여성개발원 제10대 원장 선출과정에서 정관 개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에 정관 원상 회복부터 이뤄져야 갈등의 매듭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3월 31일 이사회 안건 논의를 위해 열린 운영위원회서 정관 개정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공식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님·단체들 동국대 장학·발전기금 쾌척

월주 스님 등 학교, 병원에 기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스님과 단체들의 기부들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3월 26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4층 회의실에서 병원발전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월주 스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모든 의료진의 친절하고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았다. 작지만 병원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해사 조실 법타 스님은 3월 24일 학교를 찾아 동국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장학금 기부는 올해 1학기에 동국대 사찰경영최고위과정 강의를 하게 된 법타 스님이 수강생들을 지원하고자 이뤄졌다.

(사)월드머시코리아 대표 현진 스님은 동국대 재학생 봉사단체인 참사랑봉사단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1500만원을 3월 24일 기부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3월 26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경주 지역 문화재 발굴기관인 (재)춘추문화재연구원(원장 박진)은 3월 25일 지역 고고학 인재 양성을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전공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하고 고고미술사학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이젠 디지털 불교노인복지로 대전환”

불교실버복지 산실 ‘서울노인복지센터’ 개관 20돌



2001년 개관 당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전경. 2009년 개설한 난타교실서 북을 치는 어르신들. 2021년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 모습.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대표 노인복지 거점인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가 4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1년 4월 1일 서울시가 설립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더 이상한 복지관’ 이라는 미션을 통해 색다른, 그 이상의, 독특한, 차별적이라는 다양하고 열린 관점으로 권익, 평생교육, 건강, 상담, 취업 등 더 나은 노년의 일상을 위해 노인복지를 실천해왔다.

무료급식소에 복지서비스 더하다

2001년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연 것은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의 영향이 컸다. 급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의 모습에 서울시는 무료급식소를 겸한 복지센터를 건립했다. 위탁 운영은 관내 최대 종교시설인 조계사가 맡았다.

무료급식과 함께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은 주효했다. 설립 당시 설계한 하루 이용객 1200명을 훌쩍 넘은 사람들이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았다. 먼 곳에서도 어르신들이 센터로 찾아왔을 정도였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를 바탕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했다. 2003년에는 어르신 취업 허브로 서울시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개소하는가 하면 2007년에는 제1회 탑골대동제를 열고 어르신 문화행사를 주도했다. 2009년 실버영화관 개관과 인문학아카데미, 상담센터 개소 등은 그 연장선상이었다.

여기에 평생교육 일환으로 취미 및 교양강좌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2008년 시작한 서울 노인영화제는 어르신들의 창의적 발상에 청년감독들을 함께 묶어 사회활동까지 이끄는 훌륭한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국제영화제로도 발돋움했으며 랜선영화제로도 최근에는 전환됐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21년 4월까지 6만 6000여 회원을 기록하고 하루 이용객이 3000여 명이 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자치 · 능동 복지서비스 전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20년간 어르신 복지에서 일궈낸 성과는 어르신들의 자치복지, 능동복지라는 부분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본관, 별관,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에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탑골미술관, 무료급식소인 만발식당, 은빛행복가게, 꿈나눔카페가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TOP독립영화관, 진료실, 물리치료실, 철학교실, 당구교실, 탁구교실, 무용교실, 동아리실, 컴퓨터교실 등이 있다. 3층에는 생활상담실, 디자인실, 인생교실, TOP방송국, TOP작은공연장, 게이트볼장, 탑골문화예술학교가 들어서 있다.

별관은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를 비롯해 노년설계교실, 커피전문교육실 가비방, 청각장애인휴게실, 직업능력교실 등 역량계발을 위한 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취미활동공간인 분관에는 탑골작은도서관, 상상교실, 요리교실, 체력단련실, 영화제작소 등이 위치해 있다.

2013년 5월에 개관한 탑골미술관은 예술을 품은 복지관이라는 주제에 맞춰 센터 한켠에 미술관을 열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과 함께 어르신들이 직접 문화해설사로 나서는 역할을 부여했다.

복지관 내의 탁구 · 장기 등 모임, 헬스장 운영, 바리스타 과정 등등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초기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이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은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데 머물렀던 예전 복지개념에서 지금은 은퇴한 실버세대의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수요가 있다. 특히 역할을 부여받아 활동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어르신들의 역량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20년간 이 부분에서 크게 성장한 것이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성과”라고 말했다.

디지털 노인복지로 전환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콘텐츠의 대중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 시기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관 20주년을 맞아 4월 1일 열린 개관기념행사는 유튜브 채널 ‘탑골TV’ 를 통해 선보이기도 했다.

올해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의 일상에 필요한 또 다른 경험과 교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한 ‘스마트복지’ 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노년의 또 다른 역할을 찾고, 기존의 서비스 전달 방식을 넘어선 더욱 확장된 노인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20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서는 스마트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하반기에는 상담, 건강, 교육, 커뮤니티 등 센터에서의 일상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구축도 제안됐다. 이날 선보인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스마트복지’ 는 단순히 어르신 일상에 온라인 접근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역동을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또 다른 일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설명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스마트복지 가능성에 대한 대담도 진행한다.

4월 2일부터는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전시인 ‘서울노인’ 도 시작했다. ‘서울노인’ 전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지난 20년 다양한 노년의 이야기를 ‘지금’ 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20년간의 노인복지를 점, 선, 면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센터와 함께 걸어 온 어르신, 봉사자, 후원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지금’ 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탑골미술관 공간을 채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지난 20년 발자취를 기억하며 앞으로 20년을 살아가기 위한 과제를 탐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환경변화에 다른 방식의 대안을 계속 시도해보며,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더욱 단단한 일상을 만들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걸어온 길

2001	“2001, 그 봄날의 기억.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시작”
2002	“나눔과 공유의 첫마음, 제1회 나눔의 등축제 ‘달아달아 마음 달아’”
2003	어르신취업 허브, 서울시중앙고령자취업알선센터 개소
2003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노년, 탑골문화학교
2003	노인의 행복해 질 권리를 세상에 말하다. ‘2만 어르신 걷기대회’
2004	노인취업의 또 다른 역할 변화, 노인취업훈련센터 개소
2005	노년의 역동적 미래에 대한 고민, 활기찬미래연구소 개소
2006	개관 5주년 기념 세미나,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2007	일상의 경험과 배움의 공유, 제1회 탑골대동제 ‘열혈노인’
2008	노인 · 청년감독의 노년의 삶에 대한 시선 교차, 서울노인영화제의 시작
2009	시네마천국 in 센터, 실버영화관 개관
2009	철학의 향기, 역사의 눈, 문학의 힘을 알다. 인문학 아카데미
2009	마음의 걸림돌을 희망의 디딤돌로,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개소
2010	실버갤러리 ‘고운님’ 개소
2011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노년. 개관 10주년 기념 걷기대회
2011	10주년 기념 세미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센터의 역할’
2013	예술을 품은 복지관, 탑골미술관 개관 ‘봄, 익숙한 것을 되돌아 봄(개관전)’
2014	제1회 서울노인복지센터 바둑 · 장기대회
2015	지역 사회로, 상상의 분화.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개관
2015	책과 커피, 그리고 어르신 바리스타. 꿈나눔카페 개소
2015	탑골미술관 신인작가 지원사업
2015	영화와 같은 일상을 꿈꾼다. 영화제작소 개소
2016	맛으로 지역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분관 공유부엌 시작
2017	노년과 만나다. 참여미술프로젝트 첫번째 이야기 ‘숨, 결’
2018	바리스타의 꿈, 가비방 개소
2018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2019	탑골미술관 기획전 ‘다시 꾸는 꿈’
2019	제천으로 향하는 센터만의 인생열차, Silver_Train
2020	온라인, 복지서비스의 또 다른 실험과 대안 찾기
2020	랜선을 타고 전파를 타고 흐르는 열세번째, 서울노인영화제
2021	스마트복지로 펼쳐 낼 어르신의 오늘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 연다

4월 16~18일까지 3일 간 법석 열려

자장율사 계율 근본 도량
계첩 수여식 등 진행예정
보살계 장기 동참자 격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신축년 보살계 수계 산림 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2017년 보살계 수계 산림 자료사진.

"계를 지키며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파하고 100년을 살지 않겠다."

양산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엄중한 서원이다. 이러한 자장 율사의 지계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 발원하는 법석이 마련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신축년 보살계 수계 산림 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법회는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경내 설법전에서 시작된다.

수계산림은 불공을 시작으로 입재식 및 설계(設戒)로 진행된다. 둘째 날인 4월 17일에는 오전 불공과 설계가 이어지며, 회향일인 4월 18일에는 오전 8시부터 설법전 앞에서 계첩 수여식이 진행된다. 4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는 불공이, 이어 오전 10시 30분에는 설법전에서 수계식 및 영축장학회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된다. 이후 참가자들이 계첩을 보자기에 싸 등에 지고 금강계단 앞에서 연비를 받고 사리탑 정근을 하는 회향의식도 펼쳐진다.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에는 전계대화상인 영축총림 율주 혜남 스님을 비롯해 3사 및 7증사 스님이 3일 동안 〈범망경〉 보살계본에 근거해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를 설할 예정이다.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서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조치도 철저히 진행된다. 통도사 설법전을 비롯해 각 전각에는 내부 참석인원이 제한되며 평소 수용인원의 30%만이 입장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손소독제, 체온 측정도 진행된다.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서는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TV'와 밴드 '화엄의 숲'에서 실시간 중계도 진행된다. 회향일 연비의식은 실외서 거리두기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통도사는 자장 율사가 금강계단을 쌓아 계를 설한 계율 근본 도량으로 매년 전국불자들이 보살계를 받기 위해 찾고 있다. 이에 통도사는 매년 음력 3월 3일부터 5일까지 보살계 수계산림을 열고 있다. 반복참여 불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도사는 회향법회서 특별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10회 수계자들에게는 기념메달이, 15회와 20회 수계자에게는 금가사도 수여된다. 25회 · 30회 · 35회 수계자들에는 금가사와 함께 성만패도 증정된다.

보살계인 만큼 나눔회향을 위한 인재불사도 활발하다. 영축총림 강원과 율원에서 수행 및 정진하고 있는 학인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축장학회 장학금 전달식도 보살계 수계산림에서는 함께 진행된다.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신라 자장 율사께서 부처님의 금란가사와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을 수계 증명단으로 삼고 계율 전수를 통해 부처님 정법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자장 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이어가고자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한다. 널리 동참해 인연공덕을 맺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는 보살계 수계산림 동참자를 위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차량을 운행하며, 동참자들은 부산 온천장 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탑승 가능하다. (055)382-1288

민추본 부산지역본부장에 정관 스님

3월 30일 "평화통일 위한 실천" 취임 일성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장에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이 취임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3월 30일 부산 원오사 대웅전에서 '부산지역본부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관 스님은 부산지역본부 사무총장을 맡아 평화 통일을 위한 지원 및 활동에 꾸준히 활동해왔다.

이날 이 · 취임식에서는 민추본 본부장 월우 스님과 사무총장 지상 스님, 前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 등이 동참했다.

정관 스님은 취임과 함께 실천을 강조했다. 스님은 민추본에서 제작 배포하는 〈불교 통일 선언 실천 안내서〉를 예로 들며 "평화와 통일이 민족의 시대적 과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덕원사, 코로나 소멸 천도재 봉행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는 3월 28일 경내 1층 설법전에서 '코로나 소멸 기원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에는 주지 덕원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통도사 혜일 스님 외 스님 20여 명과 박태환 중구청장,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 회장 등이 동참했다.

주지 덕원 스님은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하며 울산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게 됐다"며 "예기치 못한 질병과 경제난을 극복하고 바라는 일 모두 성취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백양사 산신각 점안식 봉행

울산 백양사(주지 산옹)는 3월 27일 백양사 산신각에서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는 주지 산옹 스님, 양산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백양사 산신각은 울산 함월산 여의주봉에 자리해 울산시내와 태화강 등 뛰어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산신각에 이르는 108계단을 새롭게 조성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산신각은 전국 최초로 은행목을 조각해 옻칠로 마무리 했으며 외5포 내7포 형식의 팔작지붕으로 지어졌다. 주지 산옹 스님은 "울산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안식처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울산 백양사는 3월 27일 백양사 산신각에서 점안식을 봉행했다.

금정총림 포교사회 출범, "전법 박차"

템플스테이, 일요법회, 박물관
3월 28일 3개 팀 구성 발대식



금정총림 범어사는 3월 28일 선문화 교육관 대강당에서 '금정총림 포교사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금정총림 포교사회'를 창단했다. '금정총림 포교사회'는 금정총림 포교사회 산하단체로 일요법회팀, 템플스테이팀, 박물관팀으로 구성돼 포교 활동을 펼친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3월 28일 선문화 교육관 대강당에서 '금정총림 포교사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발대식에는 주지 경선 스님, 강주 정한 스님, 총무국장 보운 스님 및 범어사 국장 스님들과 신기열 부산불교총연합 신도회 부회장, 장병주 부산불교총연합 신도회 사무총장, 금정총림 포교사회 소속 불자들이 동참했다.

발대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회기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명된 강미자 금정총림 포교사회 초대회장은 동국대 불교상담연구소연구원으로 경주 동국대에서 불교학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K-MBSR, MSC, 차명상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명상 수행을 이끌고 있다.

강미자 회장은 "현재 금정총림 포교사회는 템플스테이, 선문화관팀, 박물관팀으로 구성돼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범어사 제반 행사에도 참가해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 포교사들 모두 자신이 주인공이란 생각으로 금정총림 포교사회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범어사는 포교사회 활성화 및 발전을 기원하며 금정총림 포교사회 측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포교를 위해 함께하는 도반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금정총림 포교사회가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포교사회가 결집하며 힘을 보태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금정총림 포교사회는 3월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강미자 회장과 김경순, 김정만 감사를 선출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취봉 스님 추모 다례재 및 장학금전달



창원 불곡사 우담문도회(이사장 도홍)는 3월 27일 창원 비음산 불곡사 관음전에서 제20주기 취봉 스님 추모다례재 및 우담문도회 취봉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사장 도홍 스님, 우담문도회 교육원장 능산 스님, 취봉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 김해 팔봉암 법산 스님, 김해 대원사 연공 스님, 창원 화업정사 해인 스님, 이영희 불곡사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다.

장학금은 홍승혜(동국대경주 불교학과), 박지원(창원남고1), 손의석(남산고 2), 허지원(신월초6) 학생이 받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원각사, 소외 계층에 자비의 쌀 나눔



원각사(주지 도흔)는 3월 29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부처님의 열반재일을 맞아 원각사는 사단법인 부산시 불교복지협의회로 쌀 1000kg을 전달했다.

주지 도흔 스님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쌀을 기탁했다"며 "적은 양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배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보현사 대웅전 불단에서 나온 〈선문염송〉 및 1919년 〈조선독립신문〉과 〈국민회보〉가 한 장에 새겨진 등사본(영천역사박물관 소장)

동화사 學僧 만세운동 의미 기려

대구 보현사 3월 30일 첫 추모재 개최

보현사 독립운동 기록 공개
〈선문염송〉에 '국민회보' 등 한장의 종이에 등사 기록돼
'고종 독살설' 등 내용 담겨

신성민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엄혹했던 일제강점기, 대구 동화사 지방학림 소속 학승들은 동화사 심검당에서 비밀리에 만세운동을 열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동화사 포교당인 조선선종경북포교당(현 보현사)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1919년 3월 30일 대구 덕산정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만세운동 직후 동화사 학승들은 왜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대구 최대 만세운동을 주도한 학승에 대한 정확한 법명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일제 공판 기록에 속명이 기록됐는데 윤학조 · 김문옥 · 허선일 · 이보식 · 이기윤 · 김윤섭 · 김종단 · 이성근 · 권청학 · 박창호 스님 등 10명이다.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한 동화사 10인 학승들의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102년 만에 열렸다.

대구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주지 지우)는 3월 30일 일주문 앞 광장서 '제1회 동화사 학승 대한독립만세운동 추모식'을 봉행했다.

'3.1 독립선언 역사의 현장!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에서 꽃피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은 102년 전 열린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한 동화사 학승 10명과 3000여 명의 운동 참여자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 대응사 주지 현장 스님,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노무순 광복회 대구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보현사 주지 지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태극기를 높이 올린 애국심이 있었기에 지금 후손들이 자유의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순국선열들이 없었다면 백의민족은 노예가 됐을 것"이라며 "총칼이 자신의 가슴을 뚫는 한이 있더라도 덕산정 시장에서 사자후를 했던 열 분의 스님과 한 생을 바친 유명무명의 독립투사들께 백만 번 천만 번 땅바닥에 이마를 대며 예경을 올린다"고 추모했다.

추모식 이후에는 보현사 대웅전에서 발견된 새로운 독립운동기록물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기록물은 현재는 영천 용화사로 이건된 보현사 대웅전 불단에서 발견된 〈선문염송〉에서 발견된 등사본으로 1919년 '조선독립신문'과 '국민회보'가 한 장에 등사돼 있다. 크기는 세로 22.0cm, 가로 31.4cm로 종이 두 장을 이어 붙였으며, 국한문이 혼용돼 있다. 두 기록물이 한 장의 종이에 등사된 것은 국내에서 최초 발견이다.

등사본 신문에는 민족대표 33인 등이 태화관에서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종로경찰서에 구인됐다는 내용과 2000만 민족이 마지막 1인까지 남게 되더라도 절대 난폭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비폭력 운동 방침이 실려 있다.

또한 '아태행태상황제폐하(我太行太上皇帝陛下) 붕어(崩御)에 원인(原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제에 의한 고종의 독살설을 제기하고, '가칭선일동화(假稱鮮日同和)함을 증명(證明)한 역적(逆賊)들'이라며 귀족 대표 이완용 등 6인을 지목하고 있다.

마이산 탑사, '진안군 착한 사찰 1호' 선정

진안군 마령협의체로부터 3월 29일 현판 전달 받아



마이산 탑사는 3월 29일 진안군 제1회 착한사찰로 선정돼 현판을 받았다.

전북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매월 일정 금액(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에게 주는 '착한 사찰'에 선정됐다.

진안군 마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수현, 동상진)는 3월 29일 마이산 탑사를 찾아 진안군 제1호 '착한사찰' 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착한사찰 현판 전달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마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표해 마령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진안군 1호 착한사찰로 선정된 '마이산 탑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로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성 스님은 "작은 돌을 모아 큰 탑을 이루듯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 어려운 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수현 마령면장은 "오늘 착한사찰과 착한가게 현판 전달을 통해 마령에 소재하는 기업과 업소들이 '마령 희망 천탑 쌓기' 운동에 동참하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부터 복지허브화 연합모금을 위해 매월 1개 탑 당 1만 원 이상 3만 원 상한의 정기기탁을 받아 월 3만 원 이상 기부한 업소 및 기업에는 착한가게 현판을, 월 2만 원 이상 기부 가정은 착한가정 액자를, 월 1만 원 이상 기부 개인에게는 탑 번호를 부여하는 '마령 희망 천탑 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령면에는 '착한가게' 4개소, '착한사무실' 1개소, '착한사찰' 1개소, '착한가정' 10개 가정이 기부하고 있으며, 3월 26일 기준 71개의 탑이 쌓여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재생에너지 확산 나선다

3월 30일 광주남구청과 업무협약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광주남구청은 3월 30일 재생에너지 확산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무등)가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광주 남구청(청장 김병내)과 3월 30일 남구청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민간단체 협력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광주남구 기반 재생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태양광 바로알기, 재생에너지 홍보사업, 재생에너지 주민카페, 재생에너지 상담사 양성, 재생에너지 공작소 운영, 연구용역 등을 전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약식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상진 스님,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이해모 사무총장, 양미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비는 총 5500만원으로 전국 7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광주전남지역서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유일하다. 김병내 청장은 "남구가 환경을 우선하는 자치구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상진 스님은 "남구에 좋은 환경기반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에너지 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노인福, '방역도우미' 추진



방역도우미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방역을 하는 모습.

선운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신규 사업으로 '가가호호 찾아가는 방역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 가정으로 방역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현관, 문손잡이, 화장실 배수구 등을 소독하고 해충 퇴치 방역도 함께 진행한다.

방역팀은 5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방역소독과 개미, 바퀴벌레, 모기, 쥐 등 해충 퇴치를 위한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관장 대원 스님은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청암사, 지역에 생필품 전달



청암사 주지 지암 스님이 아이들과 함께 여수시청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는 3월 24일 코로나19로 지원마저 끊겨 힘든 상황에 놓인 지역 복지단체에 자비의 쌀과 식료품, 마스크를 전달했다. 주지 지암 스님을 비롯한 신도 봉사자들은 여수 시청에 마스크 1000장, 세구지 지역아동센터에 쌀 40kg, 장애인시설인 꿈이룸터에 쌀 100kg과 라면 5박스, 세구지 경로당에 쌀 800kg 등을 기부했다. 여수시청에 전달한 마스크는 저소득 취약가정인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위기가구에 전달됐다.

지암 스님은 "어느 해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졸업식 개최



의성 고운사는 3월 27일 화엄승가대학원 졸업 · 입학식을 함께 진행했다.

의성 고운사(주지 등운)는 3월 27일 화엄템플수련관에서 화엄승가대학원 제5회 졸업식 및 제7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 및 입학식에는 제5회 졸업생과 7회 입학생이 참석했으며, 교구본사 주지 등운 스님과 대학원장 등현 스님, 총무국장 도륜 스님, 최치원 관장 정우 스님 외 본말사 스님 20여 명도 함께했다.

올해는 9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으며 그 중 5명이 연구과정에 진학했고 입학생도 9명이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4월 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6

스리랑카 불교계, 미얀마 민주화 동참

스리랑카 미얀마평화승가연합, 3월 27일 군부 규탄, 희생자 추모 행사도

불교유적지 루완웰리사야서 목숨 잃은 민주화 열사 추모 스리랑카 · 미얀마 연대 강화

박정현 객원기자

스리랑카 불교도가 미얀마 군부의 폭력 학살로 인해 희생된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민주화 사상을 고양시키는 의식을 봉행했다고 3월 29일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에 주둔한 미얀마 평화 승가 연합(the Myanmar Peace Sangha Unio)은 3월 27일(현지시간) 스리랑카의 불교 유적지인 루완웰리사야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목숨을 잃은 민주화 시위자들을 위한 불교 의식을 봉행했다.

해당 매체들은 이날 스님들이 군사 쿠데타 이후 구금된 미얀마 대통령 윈 민(Win Myint)과 외무부 장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고 확산되는 추세다. 미국은 미얀마와의 모든 무역 협정을 중단시키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섰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얀마 군사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국제 연합전선 결속을 촉구한 상황이다.

유엔의 미셸 바첼렛 인권고등위원 등 고위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도피하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쏜 미얀마 군인들의 부끄럽고 비겁하고 잔인한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심지어 그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사지로 내몰았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국민들을 군부의 잔학한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잔학한 범죄를 미연에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아웅산 수치여사 석방을 촉구하는 스리랑카 스님들. 사진출처=mizzima.com

미얀마 군부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나아갈 길이 없다"고 했다.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지난 주말 동안만 7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20여 명의 민주화 시위자들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누적 5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사망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윈 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장관, 국가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 동맹(NLD) 당원 등을 구금한 뒤 1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수십만 명의 미얀마 국민들이 윈 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장관의 석방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다.

3월 28일(현재시간) 기준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 집계에 따르면 쿠데타가 발발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주화 시위를 벌이던 시민 총 2600여 명이 구금되고 총 3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안 혐오에 사찰피해 "증오범죄 멈춰"

히가시 혼간지사, 애틀란타 총격 피해자 추모식도

지난 2월 말 아시안 증오범죄로 인한 훼불 사건이 발생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불교사찰 히가시 혼간지(Higashi Honganji)가 망가졌던 경내 시설물을 복구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사회에서 종교 등 차이로 인한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의식 개선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터넷 종교 매체 릴리젼 뉴스(the religionnews)는 3월 29일(현지시간) "히가시 혼간지 사원이 파손된 지 한 달이 지난 최근 망가졌던 창문과 등불을 복구했다"며 "그러나 사원 앞에 비치됐던 목조 등불 등은 여전히 재건 작업 중이다. 사원 관계자들은 추가 복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노리아키 이토(Noriaki Ito · 72) 주지 스님 등 사찰 관계자들은 사찰이 피해로 인해 요새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토 스님은 "우리 신도만 사찰 시설물을 향유하고, 불교도들만 사용한다면 도량은 오직 우리만을 위한 배타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지역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토 스님은 또 최근 한국인 여성을 포함해 총 8명이 사망한 애틀란타 총격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증오범죄가 확산하는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혼간지 사원의 파괴될 시설물. 사진출처=릴리젼 뉴스

그러면서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망한 지 49일째가 되는 5월 4일에 희생자 추모식을 봉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해당 사원은 일본의 전통 등불 등 사찰 구조물 등이 방화로 인해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시아계 종교에 대한 증오범죄로 지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신심인가, 탐욕인가", 日황금불상 악용

가정 불교용품, 불단 보유 상속세 비과 제도 활용 증가

30~50% 일반상속세 대비 종교용품에는 세금 안붙어 금은방에서 물품 거래 많아

귀금속의 대표주자이자 자산인 금에 대한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금으로 만든 불상과 불구를 활용한 상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본의 불교용품에 대한 상속세 비과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26일 '야후 재팬 뉴스', '프레지던트 온라인' 등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해져 국제 금값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금값은 20년 전에 비해 3.9배 올랐다.

불교는 금과 깊은 관계가 있다. 부처님의 몸은 금빛이 돈다고 하였고, 성도한 부처님께 사천왕은 황금발우를 공양 올렸다. 이러한 전통으로 사찰서도 불상과 수미단 등 예경에 관계되는 중요한 곳에는 금으로 장엄하고 있다.



킨카쿠지 금각의 모습. 사진출처=야후재팬

일본의 경우 교토 킨카쿠지(金閣寺) 금각이 유명하며, 금광이 있었던 이와테(岩手)현의 츄손지(中尊寺)의 경우 전각 내부 모두를 금과 나전칠기로 장엄한 콘지키도(金色堂)가 널리 알려져 있다.

사찰 뿐 아니라 가정불단 전통이 있는 일본의 경우 가정에서도 불단을 금으로 장식하곤 한다. 핵가족화에도 전국 가정의 50% 가까이가 가정불단이 있기에 금불상 수요는 만만치 않다. 특히 정토종과 정토진종의 경우 극락정토가 금과 칠보로 장엄되어 있다는 경전 내용을 반영해 불단 자체를 금박으로 싸기도 한다.

이런 수요에 일본 귀금속 전문점이나 보석상 등에는 불상과 불구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다. 1000만엔(한화 1억여 원)을 넘는 금불상, 수백 만엔의 순금 촛대나 향로 등도 쉽게 볼 수 있다. 코로나 19로 가정 기도가 증가하면서 이런 금불상과 불구 판매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신앙심이 최근에는 악용되고 있다. 종교용품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세법에서 상속세는 1억엔 이하시 30%, 6억엔 이하시 50%로 세율이 높은 편이다. 부유층들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불교용품이나 순금 불상을 수집하는 것이다.

종교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본디 불교용품을 비과세로 책정한 것은 전통적으로 깊은 신심에서 불보살을 예경하고, 돌아가신 선조들을 기리기 위한 신심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불상과 불구는 전통 공예품이고, 같은 무게의 금에 비해 더욱 고가이다. 당장의 세금을 피하겠다고 귀금속으로 된 불교용품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계율 시조, 감진화상 특별전 열려

最古초상조각 '감진화상좌상' 12년 만에 공개

일본 불교에 처음으로 계율을 전한 감진(鑑眞)화상과 일본불교 속 계율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특별전이 열린다.

3월 25일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교토 국립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의 소식을 보도했다.

감진화상은 낙양과 장안 등지에서 유학을 마친 끝에 고향인 양주의 대명사(大明寺)에 주석했다. 당시 강남 제일의 스승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율맥을 지닌 율사를 초빙하려 한 일본 조정의 간청으로 도일을 결심, 5번의 실패 끝에 753년 6번째 시도에서 일본 땅에 도착했다.

이후 나라의 토다이지(東大寺)에 계단을 건립하고 최초로 사분율에 의거한 3사 7증의 수계식과 수계를 원하는 재가자들에게 보살계를 설했다. 감진화상에게 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는 토다이지와 대불을 조성한 쇼무천황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감진화상은 단순히 계율뿐만 아니라 당에서 발전해 있던 의학과 천문, 역법 등의 지식도 함께 소개했다. 이로 인해 일본 고대 불교사에서



감진화상좌상을 보는 관람객들. 사진출처=미술전내비

감진화상의 도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일본 불교 속 계율의 발전사를 살펴보는 특별전이 3월 27일부터 약 2달간 교토 국립발물관에서 개최되는 '감진화상과 계율의 발자취 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특별히 토쇼다이지(唐招提寺)에 봉안되어 있던 '건칠감진화상좌상'이 공개된다. 좌상이 산문 밖에서 공개되는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특히 이 좌상은 감진화상 생전에 조성된 초상조각으로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초상승상이다. 건칠상이라는 특성에서 주름하나, 수염 한 올까지 모두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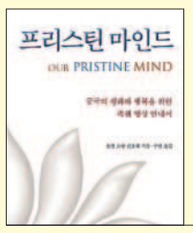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31~4/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불교성전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4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윤수	한산암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6	딱돌 해설서 : 바르도에서 닦지 않고 해탈하는 법	중암선해	금빛소리
7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	법륜스님	정토
8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권수염불법문)	원영굉오/정원규	불광출판사

책세상



프리스틴 마인드

올갠 초왕 린포체 지음
수연 역/운주사 펴냄
1만 7천원

저자가 수행 공부하며 체득한 수행법
명상 모든것 안내하는 명상 가이드북

"청정본심 수행, 마음의 오염 자연스레 제거"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닝마파의 지도법사이자 족첸 법맥의 지도법사인 저자가 그동안 수행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체득한 명상 수행법을 '프리스틴 마인드(Pristine Mind)' 즉 청정본심으로 꿰어 설명한 책이다. 이 책에는 처음 명상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숙련된 수행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점차 완전히 깨우칠 때까지, 명상의 모든 길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린스틴 마인드(청정본심)' 명상은 저자가 찾아내고 계발시킨 용어이자 수행법이다. 물론 저자는 이 명상법의 근원이 철저히 '붓다'와 '구루 린포체 파드마삼바바'의 가르침에 있으며, 나아가 롱첸빠와 미팜 린포체, 그리고 스승 직메 푼촉 린포체의 가르침과 지혜에 근거한다고 밝힌다. 저자는 "청정본심 수행은 마음의 오염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일체중생은 모든 면에서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든 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마음을 돌려 청정본심을 향한 장벽을 제거하면 무조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 즉 마음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과의 연결을 방해하는 요소들, 즉 일상심서 비롯된 왜곡과 장애들을 줄이고 없애면 자유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자신의 진정한 마음 상태, 조작되지 않은 자연스런 마음의 상태(청정본심)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즉 청정본심과의 연결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바로 청정본심 수행의 길이다. 이처럼 이 책은 마음챙김, 즉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운 마음을 넘어서 궁극의 평화와 행복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길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그 여정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우리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드러내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행복과 다시 연결시켜 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김주일 기자



혼자가 되었지만 홀로설 수 있다면

도연 지음
디 이니셔티브 펴냄
1만 4800원

도연 스님의 특별한 '고급 명상 클래스'
호흡 · 에너지 · 소리 · 마음챙김 명상 등

"우리는 진정한 홀로서기 시간이 필요하다"

"스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꿈과 희망으로 여겼던 어린 시절. 카이스트에 입학한 그는 자신이 꿈꿨던 것과는 다른 현실에 방황한다. 성적과 취업을 위한 치열한 경쟁, 준비 없이 주어진 자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가치관의 혼란과 삶의 방황으로 이어졌다. 제대로 숨쉬기조차 어렵게 느껴졌던 그의 삶은 명상을 배우면서 큰 변화를 맞이한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고 알아차렸을 뿐인데, 내가 누구인지, 열등감에서 벗어나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 스물한 살의 카이스트 학생은 어느 날 출가를 단행한다.

"명상은 단지 고요함에 머무르며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한 일체의 것들이 명상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도연 스님은 도시에 산다. 봉은사 명상 지도법사로 있으면서 조계종에서 진행한 미디어 포교 활동인 '잡(job)스님'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 최근에는 유튜브 〈마음챙김 도연TV〉와 클럽하우스 〈클하사寺〉에서 명상 방법을 지도하며 끊임없이 소통한다.

그가 대중들과 이렇게 활발히 소통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방법인,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의 정신을 나누기 위함이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출가했던 스물한 살의 청년은 어느덧 15년간 도연 스님으로 살아오며 삶을 성찰하게 해 준 명상을 대중들과 나눈다. 이번 책에는 도연 스님의 특별한 명상 방법도 소개된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는 '호흡 명상', 깨어 있는 현재 의식의 내가 무의식으로서의 나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에너지 명상', 명상의 기본 원리이자 바탕인 집중력을 기르게 해주는 '소리 명상', 그리고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계발하는 '마음챙김 명상' 등등.

김주일 기자



둘, 또는 하나

이은정 지음
인간과 문학사 펴냄
1만 3500원

생과 사, 만남과 이별, 너와 나 등
不二 통해 존재의 근원 갈구 그려

저자, 기존소설에 '불이사상' 가미해 재창조

이 소설은 오래전 발표한 장편소설 〈가시연꽃〉에 불교의 불이사상(不二思想)을 가미해 새로운 장편소설로 집필해 펴낸 책이다.

〈가시연꽃〉은 부처의 길과 뜨겁고 붉은 피로 인해 가슴앓이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길 사이에서 오랜 세월 절망하고 방황하는 주인공의 안타깝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책은 둘이 아닌 하나의 진리 불이사상과 물결처럼 밀려오는 욕망의 강물을 넘어 니르바나의 저 언덕으로 일엽편주를 저어가는 과정이 핍진하게 그려졌다.

저자인 이은정 작가는 "생과 사, 만남과 이별, 행과 불행, 너와 나, 유와 무 등은 그 근원이 모두 하나"라며 "이 오묘한 진리의 이치를 말로는 말할 수 없다. 불이(不二)의 이치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다"고 집필 취지를 밝혔다.

고영직 문학평론가는 이 작품에 대해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아 길과 산 그리고 저잣거리를 운수납자처럼 헤매는 화자의 외로운 만행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감(歸根)'에 대한 갈구가 아니겠는가? 고행 속에서 혜운 수좌가 발견한 한 송이 연꽃 향기는 청정한 마음 행로를 찾기 위해 자신과 정신의 격투를 벌인 자의 푯대가 보이는 소설"이라고 찬사 했다

김성동 소설가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가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지만 결코 혼자서는 갈 수 없다. 배에 고인 물을 퍼내듯 이 모든 욕망을 버리고, 거센 이 물결을 건너, 니르바나의 저 언덕으로 가야된다고 알면서도,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라며 "참다운 자유와 사랑, 아름다움과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평했다.

한승원 소설가 역시 "살아가는 것이 삶의 구경을 찾아가는 구도 그 자체라고 할 때, 깨달음의 길은 잿빛 제복 속에서만 근엄하게 뻗어 있지 않고, 제복 저 너머에서 또 다른 자유의 길로 새로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소설"이라고 지칭했다. 김주일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관세음보살의 보문시현 되새기며…

조해종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展
부산 이젤갤러리 4월 12일~24일

다양한 시공간의 중생들 구제 그려
옻지 · 분채 활용 친근한 모습 표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관세음보살 의미 되새기는 기회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 이수자이자 故 석정 스님의 제자인 조해종 작가가 일곱 번째 개인전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 展을 연다.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이젤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 15점을 선보인다.

관세음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깨달음을 얻을 능력이 있으나 자비심으로 중생 구제를 실천하는 존재이며,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대표적인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음보살은 광세음 · 관세음 · 관자재 · 관세자재 등으로 번역하며 줄여서 관음이라고도 한다.

관세음보살은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에 내용을 두고 있는데, 중생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곧 중생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복덕을 준다. 이러한 현실구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로 신앙되어 그동안 수많은 관음보살상이 조성됐다.



조해종 작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특징은 제도할 대상에 맞게 여러 형태로 자유로이 바뀌어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데 이를 '보문시현' 이라고 한다. 불(佛), 독각, 연각 등 32신 또는 33신으로 부른다.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감로병을 들고 있기도 하며 대개 여러 성의 모습으로 시현한다.

이번 전시의 관음도상 역시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모습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다양한 시공간의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의 제도와 구원을 바라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재료로는 옻지와 분채를 활용했다.

그 어느 때보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러야할 오늘에서 조 작가의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 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조 작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관세음보살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가 관세음보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은 "재가 불모 연당 조해종 거사는 일찍이 故 석정 스님을 가까이서 시봉하며 제자로서 불화장의 길을 걸어온 장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당 거사는 평소 신앙심과 신행의 깊이가 남다른 불모였기에 그를 보는 주변의 시선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가 이번 신축년을 맞아 코로나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민초들과 내면의 수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불자님들을 위한 개인전을 연다고 하니, 격려와 축하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고픈 심정입니다. 너나없이 우리들은 화택에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중생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삶을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 를 통해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고 하니, 거룩한 마음 가득합니다"고 축하했다.

조해종 작가는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와 동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석사과정(석사학위 논문-불모 해봉 임석정의 불화세계)을 졸업했다.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 장려상 등 10여 차례 입상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이수자이다.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 불화반 강사이며,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 외래교수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심사위원(2003~2012) 등 여러 차례 심사위원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2012년 연당 조해종 초대전(통도사성보박물관)을 시작으로 일곱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051)753-4808



조해종 作, 관세음보살 보문시현도 6.

화엄사 제1회 사진콘테스트 수상자 선정

홍매화 · 들매화 사진콘테스트 성료
화엄대상 신승원, 최우수상 허칠구
참가자 759명, 사진 1307 컷 접수

콘테스트 매년 개최, 전문가대회와
분기별로 프로젝트 조성할 계획도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개최했던 제1회 홍매화 · 들매화 사진콘테스트를 성료하고 수상자를 발표했다.

12일간 접수된 사진들은 전문 사진작가 2명 외 종무팀 포함 전문가 그룹 6명의 심사를 거쳤으며, 총 4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회 홍매화 · 들매화 사진콘테스트 화엄대상(교구장상)에 선정된 신승원의 작품.

최고상인 화엄대상(교구장상)에는 신승원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인 구례군수상에는 허칠구, 생명상인 신도회장상에는 이도기와 강희진, 코로나퇴치상인 구례보건소장상에는 이봉우 등 12명이 선정됐다. 가족상에는 정은영 등 10명이 선정됐으며, 하모니상에는 김태운 등 10명이, 매화상에는 손진숙 등 10명이 선정됐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맞물려 일상이 힘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주효했으며,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모든 국민들에게 전통사찰에서 맛보는 휴식의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더욱이 전문가 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과 손쉽게 촬영이 가능한 휴대폰 카메라를 내세운 점은 많은 공감과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콘테스트 기간 중 접수 인원은 759명, 출품 사진은 1307컷으로 집계됐으며 총 접속자수는 1856명으로 집계됐다.

화엄사는 4월 3일 수상자들을 화엄사로 초청해 화엄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한 사진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해 화엄사와 구례군을 홍보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사진 전문가 콘테스트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주지 덕문 스님은 "천년도량의 위용과 함께 지리산의 기운을 모든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었다. 더불어 화엄사가 위치한 구례군과 인근 화개에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모습은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진정한 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실례가 되었다"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화엄사는 이번 '천년의 도량에서 매화와 노닐다' 를 시작으로 각 분기별로 지리산 화엄사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조성해 종교를 넘어선 화합의 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재완 기자

BTN불교TV, 제3회 폰사진 공모전 개최

오는 5월 30일까지 접수
스님서 일반인으로 확대

스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폰사진 공모전이 열린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오는 5월 30일까지 스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3회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 을 개최한다.

폰사진 공모전은 지난 1, 2회에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3회부터는 참가자 기준을 불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는 '스님들만 응모 가능하다는 것이 아쉽다' ,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모전이 됐으면 한다' 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공모전 주제는 사찰 풍경 및 자연경관 부처님의 가르침, 나의 사찰과 수행, 스승 · 도반 · 신도, 사찰행사, 포교현장 등이며, 응모는 휴대전화로 찍은 폰사진을 BTN모바일 · PC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사진 규격은 10Mb 이하 JPG 파일이며 1인당 3점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전 심사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공감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초빙 심사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총 10점이 선정되며, 6월 말 BTN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대상 1점에는 상패와 상장, 상금 200만원, 사장상 1점 상패와 상장과 상금 100만원, 금상 1점에는 상장과 상금 50만원, 은상 2점에는 상장과 상금 30만원, 동상 5점에는 상장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BTN 채널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BTN 본사에서 오프라인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본일 대표이사는 "참가자 기준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서 이번 제3회 폰사진 공모전은 더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정법사, 근대 마산지역 계몽운동 견인

김성순 교수, 정법사 창건 109주년 학술세미나서

1912년 통도사 마산포교당 창건
정토종 등 日불교도 포교소 세워
학교 등 건립하며 지역포교 선도
장지연 등 마산포교당 드나들며
마산지역 항일운동 중심지 '부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 시기 한국불교는 역동적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본사들이 각 지역에 세웠던 도심포교당이다. 통도사 마산포교당인 정법사는 1912년 4월 8일 마산시 추산동에 창건됐다. 근대 시기 마산 정법사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와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는 4월 8일 정법사 창건 109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기록과 문화유산'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성순 동국대 연구교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마산 지역에서 정법사가 일본불교에 대응해 어떤 활동과 역할을 했는지를 살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 따르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노골적으로 조선 침략을 추진하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된다. 부대가 진주하는 곳에 정토진종, 일련종, 일련정종, 조동종, 정토종, 진언종의 각 파별로 군종승을 파송하는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산, 군산, 목포, 부산 등 항구에 별원이나 포교소를 설립했다.

특히 마산은 일본에게는 러시아의 남하정책 저지선이었다. 일본 육군성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마산 일대의 토지를 사들여 일본전관거류지(日本專管居留地)를 설치한 것은 마산의 중요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마산 거주 일본인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1899년 개항 당시 103명이었으나 1907년에는 3297명으로 늘었다. 일본불교도 마산지역으로 빠르게 들어왔다.

일본불교 중 가장 대중적이었던 정토종은 1911년에는 전국 23개소의 포교당을 설립했고, 마산 신월동에 '정토종 마산교회소' 를 운영했다. 진언종 풍산파(豊山派) 마산포교소는 신정(新町) 57번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진언종 고야산(高野山) 대사교회(大師教会) 마산지부는 통정(通町) 1정목(丁目) 24에 세워졌다. 이밖에도 일련종, 조동종, 정토진종 대곡사파 등이 마산 지역에 포교소를 설립하고 지역 포교를 비롯해 각종 사회 사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당시 마산지역 일본 포교소에 대해 한국인들은 별로 반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여러 기록과 정황으로 미뤄 볼 때 마산에 진출한 일본불교 포교소들이 마산 사람들의 신앙적 영역 안에 쉽게 동화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면서 "이는 마산 지역 한국인들이 일본불교를 거부하고 한국불교의 신앙영역을 고수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1912년 창건된 정법사는 일제강점기에 어떤 활동을 했을까. 김 교수는 교육과 포교, 항일 운동의 영역에서 활동을 분석했다.

1922년 7월 마산포교당에서 조직한 불교진흥회에서는 포교당 예산 1만 원을 투입해 보통학교를 건립하기로 한다. 1923년에는 교사를 완성하고 학생 120명을 모집해서 배달학원의 문을 열게 된다. 이는 통도사 마산포교당과 마산불교진흥회의 협력으로 이뤄졌고, 학교 운영은 마산불교진흥회 회원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정법사는 1927년 4월 12일 배달유치원(현 대자유치원)을 설립하게 된다. 마산사립 배달유치원은 마산청년회와 통도사 본산에서 연합 경영하기로 하고 1927년 봄부터 설립한 이래 1년간 사회 유지들이 1000여 원을 후원하여 제반설비를 완비했다.

김 교수는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배달학원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했다"면서 "강연회와 음악회도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가극단을 결성해서 경남 요지의 사찰에 순회공연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법사는 초대 주지 경봉 스님과 장지연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마산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정법사와 장지연이 설립한 마산불교진흥회에는 민족주의자, 지역 항일운동가들이 출입했다.

마산지역 독립운동가 중 마산불교진흥회 연관자는 괭삼진, 명도석(배달학원), 여해, 이형재, 최철룡 등이다. 괭삼진은 마산불교진흥회원이며 명도석은 배달유치원 설립 준비위원이자, 후원자였다. 신간회 마산지회 회원이었던 여해는 배달학원의 교사로 일했다. 마산불교진흥회 회원이자 배달유치원장을 지냈던 이형재는 신간회 마산지회 국권회복단 중앙총무 역할도 맡았던 사람이었다.

김 교수는 "일제강점기 당시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마산불교진흥회와의 협력을 통해 배달학원과 배달유치원을 설립해 교육, 포교, 지역 문화사업까지 진행하는 문화센터로서의 역할까지 해냈다"면서 "작은 규모의 포교당에 속하는 포교사와 신도들이 당시 마산에서 해냈던 사회사업과 독립운동의 성과는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이 '개화기 포교당 역사의 조명' 을 비롯해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마산 정법사 목조보살좌상 연구' 를, 황정일 동국대 연구교수가 '근대 불교 사진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논구' 를 각각 발표한다.

가야불교 전모 밝힐 산지가람터 확인

불교문화재硏 · 김해시
대청동사지서 절터 찾아

통일신라기 기단 석축 등 발굴
왕후사, 장유사 사지로 추정돼
가야불교 전승 중요 유적 평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김해 대청동사지 전경. 통일신라 사찰 건물지가 확인됐다.

가야불교 전승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통일신라 시기 산지 가람터가 확인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김해 대청동사지' 에서 통일신라 시대 절터를 확인했다"면서 4월 2일 유적 발굴 현장을 일반에 공개했다.

경남 김해시 대청동 산 69-11번지에 위치한 절터는 지난 2019년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실시한 '사지 현황조사' 를 통해 기단석축과 통일신라 시대 기와가 확인돼 왕후사 또는 장유사 등 가야 전승과 관련된 사지로 추정돼 왔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해 8월부터 가야문화권 학술발굴조사의 하나로 김해 대청동사지 시 · 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문화재청에서도 중요폐사지 시 · 발굴조사사업으로 선정해 함께 조사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길이 40m 정도의 석축과 기단 2기, 초석을 포함한 건물지 2동 등 통일신라 시대 유적들이 확인됐으며, 통일신라 시대 유물인 선문(線紋) 기와와 토기 등과 함께 출토됐다.

이번에 통일신라 시기 건물지가 확인된 김해 대청동 사지는 불모산 용지봉 아래 자리한 장유사에서 동남쪽으로 약 1.4㎞ 정도 떨어져 있다. 왕후사와 장유사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내용이 수록됐다. 기록에 따르면 수로왕 8대손인 김질왕(재위 451~491)이 시조모 허황후의 명복을 빌고자 452년 왕후사를 창건했다. 이후 500년 뒤에 같은 자리에 장유사가 창건되면서 왕후사지는 장유사의 헛간과 마굿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같은 기록 등을 토대로 불교문화재연구소와 김해시 측은 대청동사지가 가야불교 전승과 관련한 중요한 유적으로 보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김해 대청동사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가람과 관련 유물들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불모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교유적의 현황과 장유사의 창건, 수로왕 처남인 장유화상의 가야불교 전래 등 가야불교의 전승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日원로학자, 한국학 연구 일본학계도 인정

후지모토 교수 〈조선본 사부〉
日 최고 은사상 · 학사원상 수상
동국대 불교학술원 후원해 출간

일본 원로학자가 50년에 걸쳐 연구 · 집성한 한국 서지학 연구물이 일본학술계 최고 영예상들을 잇달아 수상했다. 특히 해당 연구물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후원으로 출간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본원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8년 7월 동국대 출판부에서 간행한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사진) 도야마 대학 명예교수의 〈일본현존조선본연구 사부(日本現存朝鮮本硏究 史部)〉가 일본학계 최고 영예인 은사상(恩賜賞)과 일본학사원상(日本學士院賞)을 수상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일본학사원상은 대한민국학술원상과 같은 위상이며, 은사상은 학사원상 중에서도 특히 권위 있는 것으로 일본 왕실의 하사금으로 제정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후지모토 교수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후지모토 교수는 각고의 노력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연구비와 출판제작비 마련의 어려움을 겪으며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던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후지모토 교수의 연구를 후원했고, 지난 2018년 〈일본현존조선본연구 사부〉가 출간되며 결실을 맺어 결국 일본학사원상, 은사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후원으로 동국대 출판부에서 출간된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의 〈일본현존조선본 연구 사부〉

역사서를 정리한 〈일본현존조선본연구 사부〉는 신라에서 대한제국 말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래돼 일본에 현존하는 한국본 사부 자료 2960건에 대한 상세한 서지학적 정보를 담은 책으로 일본어로 되어 있다. 50년 동안의 현장 답사로 만들어진 이 책은 정밀함을 위해 총 28가지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기존 한국의 목록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동판(同版)과 이판(異版)의 구별을 시도했고, 판각에 참여한 각수(刻手)의 이름이 있는 문헌일 경우 그들의 이름까지 망라해 수록함으로써 각수의 이름을 통해 간행연도와 간행지역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후지모토 교수는 일본 교토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할 정도로, 일본에 소재한 한국 고전 문헌의 연구에 열성적이었다. 그는 사부(史部) 이전에도2006년 일본에 전하는 한국의 문집 문헌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일본현존조선본연구 집부(日本現存朝鮮本硏究 集部)〉를 출간했으며, 이 공로로 2007년에는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한국고문헌 연구에서 비롯된 양국의 학문적 교류는 후지모토 교수가 수상한 '서송한일학술문화상' 과 '동숭학술상' 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후지모토 교수의 이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불교를 포함한 제자(諸子)의 문헌 자부와 사사오경과 소학에 해당하는 경부도 무사히 출간해 침체되어 있는 학계에 바람직한 지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페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3

▶ 14회 예고

목갈리뿟다띳사는 어린 아쇼까 왕자에게 자비심을 키워주기 위해 숲속에서 산스끄리뜨어를 가르친다. 그런데 아쇼까는 까마귀를 죽이려고 하는 등 살생하는 습관을 끊지 못한다. 결국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 곁을 떠나고 만다.



목갈리뿟다띳사, 아쇼까 왕자 스승 되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언제나 그 보리수 밑을 떠나지 않았다. 탁발할 때만 잠시 자리를 비울 뿐이었다. 다른 수행자들이 물이 담긴 토기항아리를 놓고 갔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손발을 씻고 양치할 물이었다. 칼라따까 제관이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난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칼라따까 대신이 다가와 말했다.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대왕을 만나러 가야겠소."

"궁궐로 갑니까?"

"아닙니다. 왕비님 별궁으로 가 있으라는 대왕님의 분부를 받았습니다."

"좋소, 갑시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했다. 물건이라고 해봐야 빈 토기발우 한 개, 물이 담긴 항아리 한 개, 담요로도 사용하는 긴 숄 한 장, 몽당빗자루 한 개뿐이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한결같았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칼라따까는 내성을 드나드는 불교 사문을 수소문했을 때 다른 수행자들이 왜 목갈리뿟다띳사를 지목했는지 알만했다. 두 사람이 다르마 왕비별궁에 도착했을 때 락슈미띳사가 종종걸음으로 다가왔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왕비님은 계시는가?"

"예, 하지만 대왕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쇼까 왕자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왕자님은 후원에서 혼자 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대왕님이 오실 때까지 후원에 있겠다."

두 사람은 다르마 왕비별궁 후원으로 돌아갔다. 아쇼까가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물었다.

"제관이시여, 왕자님은 올해 몇 세이십니까?"

"왕비님 뱃속에 있는 기간까지 합친다면 다섯 살입니다."

"글을 배울 시기가 됐군요."

"그래서 대왕님께서 사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쇼까는 두 사람이 다가가는 줄도 모르고 놀이에 빠져 있었다. 나뭇잎에서 푸르스름한 애벌레를 손으로 잡아 반반한 바위에 놓고 돌멩이로 짓이기곤 했다. 죽은 애벌레들이 한 줌은 되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움찔 놀랐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왕자님, 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군요."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밥은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지요."

"밥 먹는 것보다 이 나쁜 애벌레를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쁘다니요, 애벌레들이 커서 아름다운 나비가 된답니다."

"이 애벌레들이 나뭇잎을 갉아먹는다고 궁녀 누나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애벌레를 죽이는 거예요."

목갈리뿟다띳사는 살생을 합리화시키는 어린 아쇼까의 대답에 할 말을 잃었다. 아, 이 아이는 자비심이 부족하구나. 목갈리뿟다띳사는 입을 다문 채 그대로 서 있기만 했다. 그러자 아쇼까가 물었다.

"처음 보는 이 분은 누구예요?"

"왕자님께 산스끄리뜨어를 가르치실 분입니다. 대왕님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별궁으로 오십니까?"

"곧 오실 것입니다."

그제야 아쇼까가 손에 든 돌멩이를 던져버리더니 별궁으로 뛰어갔다. 머쓱한 표정으로 서 있던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칼라따까가 말했다.

"어린 왕자들이 천방지축입니다. 그래도 아쇼까는 얌전한 편입니다. 대왕님께서 애지중지하는 수시마 왕자는 제멋대로입니다. 인자한 라다굽따 제관이 아니면 그 누구도 수시마 왕자 옆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10살이 넘은 수시마 왕자가 장난으로 라다굽따 제관의 수염을 뽑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왕자도 왕자지만 가르치는 대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브라흐민 전통을 가르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자에게 밝은 지혜를 싹트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명지(明智)라 합니다."

그때 락슈미띳사가 달려왔다.

"제관님, 대왕님께서 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별궁 접견실로 락슈미띳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접견실 맞은편 중앙에는 빈두사라가 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좌측 작은 의자에는 다르마 왕비와 아쇼까 왕자가 앉아 있었다. 우측 두 개의 작은 의자는 칼라따까와 목갈리뿟다띳사가 앉을 자리였다. 칼라따까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왕이시여, 말씀드린 사문을 데리고 왔사옵니다."

"법력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소."

"대왕이시여, 저는 보잘것없는 사문 목갈리뿟다띳사라고 하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소?"

"베살리 산속 동굴에 있었사옵니다. 대왕님께서 모든 수행자들이 내성에 살아도 된다고 허락하시어 지금은 대왕님께서 내리시는 공양을 받고 있사옵니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이분은 다르마 왕비님이오."

"저에게 왕자님을 맡겨주신다면 영광이옵니다."

"사문이시여, 아쇼까를 잘 가르쳐주십시오."

목갈리뿟다띳사가 앉은 채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목갈리뿟다띳사의 소개가 끝나자, 빈두사라가 서둘렀다. 목갈리뿟다띳사의 법력을 직접 보고 싶었다. 빈두사라가 말했다.

"나에게는 나를 가르친 스승 까우띨리야 대신이 있었소. 왕자도 나의 스승 같은 현자를 만나게 하고 싶소. 나의 장자 수시마는 라다굽따 대신이 맡아 가르치고 있소."

"대왕이시여, 라다굽따 제관은 인품이 자애로운 분이옵니다."

칼라따까가 라다굽따를 한껏 추켜세웠다. 그는 함부로 행동하는 수시마를 자신이 맡지 않고 있는 것을 행운으로 여겼던 것이다. 대신, 빈두사라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다르마 왕비의 아들 아쇼까를 맡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빈두사라가 주저했다. 그 이유는 칼라따까가 너무 제사나 축제 같은 브라흐민 전통에 집착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칼라따까 대신에게 아쇼까를 맡길 생각이었소. 하지만 제사 지내기에 바쁜 칼라따까 대신은 사문을 특별히 추천해 주었소."

"대왕이시여, 소승은 부처님 계율대로 살고 있는 수행자일 뿐이옵니다. 그러니 너무 큰 기대는 말아주시옵소서."

"사문의 법력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소. 여기서 보여줄 수 있겠소?"

"황공하옵니다."

"아쇼까에게 특별한 전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오?"



빵갈로바뜨사에게는 미래를 물었는데 목갈리뿟다띳사에게는 과거를 물었다. 불교와 아지비까교의 차이였다. 불교 사문은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아지비까교 수행자는 미래를 예언했다. 불교 사문이 미래를 말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는 붓다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다르마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아쇼까를 부드럽게 응시한 뒤 말했다.

"왕자님께서는 전생에 쌓은 특별한 공덕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시오."

빈두사라뿐만 아니라 모두가 목갈리뿟다띳사를 주시했다. 어린 아쇼까만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별궁 접견실 천정에 어른 손톱만 한 벌레 한 마리가 날았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바로 엊그제 일어났던 일처럼 아쇼까의 전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함께 성 안으로 탁발하시러 가는 길에 소꿉장난을 하는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귀족의 아들이었다. 키가 작은 아이 이름은 자야(Jaya)였고, 다른 아이는 비자야(Vijaya)였다. 두 아이는 흙으로 성을 만들고, 성 가운데는 집과 창고를 지었다. 아이들은 창고에 보릿가루라고 하며 흙을 가득 쌓았다. 그때 제따와나(기원정사)를 나온 부처님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부처님 몸에서 나는 금빛이 성 안팎을 비추었다. 두 아이는 부처님의 밝은 빛을 보고는 놀랐다. 키가 작은 자야가 자신도 모르게 창고 안에 있는 흙을 보릿가루라고 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키가 작아 부처님 발우에 손이 닿지 않았다. 이에 비자야가 엎드려서 자야가 자신의 등 위로 올라가 부처님 발우에 공양 올리는 것을 도왔다. 흙을 공양한 자야가 마음속으로 빌었다.

'어른이 돼서 공양할 때는 천지를 덮을 만큼 많이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아이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들었다. 부처님이 옆에 따라오는 아난다에게 말했다.

"이 흙으로 내 방 허물어진 곳을 바르거라."

제따와나로 돌아온 아난다가 부처님 방의 허물어진 곳을 다 바르고 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두 아이가 내게 흙을 공양했으니 그 공덕이 클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아쇼까가 나중에 왕이 된다는 말은 빈두사라 앞에서 차마 할 수 없었다. 빈두사라는 목갈리뿟다띳사가 전생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만족했다. 아쇼까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뿐이었다. 아쇼까가 받게 될 공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빈두사라는 곧 별궁 접견실에서 일어났다. 별궁 접견실을 나가면서 한마디 했다.

"사문이여, 그대의 법력을 보았으니 나는 더 망설일 이유가 없소. 지금 바로 아쇼까의 스승이 되어 잘 가르쳐주기 바라오. 칼라따까 제관은 할 일이 있으니 앞서시오."

빈두사라와 칼라따까 대신이 나가고 나자, 다르마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목갈리뿟다띳사에게 무언가 더 들을 이야기가 있다는 표정이었다. 다르마가 말했다.

"아쇼까여, 나가 있으렴. 너의 선생님과 할 이야기가 있단다."

"그렇지 않아도 락슈미띳사 누나가 이발소에 가자고 했어요."

아쇼까마저 나가버리자 접견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다르마가 목갈리뿟다띳사를 주시하면서 먼저 침묵을 깼다.

"사문이시여, 아쇼까에 대해서 대왕께 다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비님께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아까 아쇼까 왕자님이 애벌레를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오늘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쇼까의 미래가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앞으로는 애벌레 한 마리라도 살생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쇼까가 함부로 산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할 터이니 말해주시오."

그제야 목갈리뿟다띳사가 빈두사라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저 했다.

"왕자님은 왕이 될 것입니다. 삼보를 받드는 왕이 되어 팔만사천 탑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소승의 예언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허나 왕이 된다고 소문나면 왕자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르마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바로 신뢰했다. 짬빠성에서 자나사나 구루에게 들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다르마가 또 물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옆에서 도왔던 아이는 누구입니까?"

"아쇼까 왕자님이 왕이 되시면 보좌할 대신입니다. 끝까지 왕자님을 도울 대신입니다."

다르마는 그가 누구인지 집히는 데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칼라따까는 아니었다. 비록 브라흐민이지만 편견이 적은 라다굽따일 가능성이 컸다. 그는 칼라따까보다 더 불교 사문들에게 관대한 편이었던 것이다. 〈계속〉

불보살님의 상서로운 대광명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소서.

(사) 한국불교종단연합회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종도일동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

◈ 입종서류 ◈

1.입종자격 : 스님, 법사, 포교사. 보광사에서 득도 출가자
2.입종서류 : 신행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3장
3.입종비 : 30만원, 년회비 20만원

◈ 입종시 발급서류 ◈

1. 사암등록증 2. 주지임명장 3. 승려증 및 법사증

◈ 입종문의 ◈

전화 : 보광사 042)284-3929 팩스 : 042-283-5894
총무원장 동화 : 010-8552-7108
(동국대 불교학과,불교대학원 졸)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가오동 보광사)
※ 입종후 위 서류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됨

사)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광사 주지 동화

NAVER Daum 에서 현대불교조계종 보광사를 검색하세요. http://bogwangsa.kr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❼ 구산선문의 선사상



▶ 한줄 요약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늦게 형성된 수미산문은 유일하게 중국 조동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깨침 안주하는 것 경계한 조동종 '괄골선'

〈刮骨禪〉

한국선의 수입과 태동의 역사는 중국선과의 관련성을 차치하고는 논의하기가 어렵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지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일찍 발전을 구가했던 중국의 불교 역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근지역에 보급되어갔다. 신라 말기에 수입된 선법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시작점을 중국선종의 제사조 도신의 동산법문에 두고 있는 점은 보편적인 상식에 속한다. 이후로 신라 말기 고려 초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소위 구산선문의 성격은 이런 점과 비교하여 한국선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선종의 경우에 당대 말기 및 오대 초기의 백여 년이라는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던 선종오가와 거의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걸쳐 신라 및 고려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 국한시켜보아도 구산선문은 한국선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선의 영향을 지대하게 수용하면서도 고려시대에 나름대로 독자적인 선풍을 구가했던 조동가풍의 수미산문은 선종오가 가운데 가장 일찍이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중국법맥을 수용하여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미산문의 형성은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중국선 가운데 조동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던 점에서 기타의 여덟 개의 산문과 차별되기도 한다. 중국의 조동종은 동산 양개(洞山 良价, 807~869)와 그의 문하인 조산 본적(曹山 本寂, 840~901) 및 운거 도응(雲居 道膺, ?~902)으로 계승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신라의 유학승이 조산 본적의 문하에는 보이지 않음에 비하여 운거 도응의 문하로 많이 모여들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행지면밀(行持綿密)한 조동가풍의 성격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조동종의 가르침에 보이는 성격에 대해서는 〈조당집〉 제8권의 내용을 엿볼 수가 있다. 곧 생사일대사를 결택해야 한다. 결택할 때엔 마치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고, 부지런히 지극한 도를 구할 때엔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여 해야 하며, 마치 불길이 몸을 핍박하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반연을 버리고 그 가운데 뛰어들어 사사물물에 투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출가납자로서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할 것과 생사일대사를 해결해야 할 것을 고구정녕하게 설하고 있다. 의·식·주와 행·주·좌·와의 전반에 걸쳐 일상의 수행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인 질문을 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운거가 지도했던 교단의 남다른 점이 엿보인다. 이것은 특히 조동종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도면밀(周到綿密)과 용의주도(用意周到)의 정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선풍이 바로 괄골선(刮骨禪)이었다. 평소의 행위에서 어느 것 하나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이 마치 뼈를 깎아내듯이 엄격한 수행과 자신에 대한 의지의 자립을 강조한 말이다. 동산 양개의 괄골선은 운거 도응이 계승하였다. 괄골선은 선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집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기 자신에 의하여 언어가 지니고 있는 진실한 의미를 자각할 것을 강조하는 선풍을 가리킨다. 그것은 마치 신체에 들어간 독은 뼈를 쪼개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점에 비유한 것이다. 독이란 분별을 의미하는데, 언어로 표현된 관념을 특별하게 중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당대 말기 당시의 선지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특수한 언어방식이나 방(棒) 및 할(喝)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제자들이 허위허세를 부리는 경향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꾸짖는 교화 방편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유행시켰다. 그러한 것과 구별되는 동산의 준엄한 선풍으로 출현한 것이 바로 괄골선이었다. 그리고 수행으로 얻게 되는 결과로서 공훈(功勳)에 떨어지는 것, 이를테면 깨침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까지도 강하게 경계하였다. 깨침에 안주하는 것마저 경계한 것은 이후로 조사선풍의 전통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은 출가인의 마음자세에 대한 강조는 당시

수미산문, 조동종 직접 영향받아
뼈깍는 엄격한 수행과 자립 강조
언어가 지닌 진실한 의미를 자각



강서성 의풍 동산 보리사에 있는 동산 양개의 탑. 당우안에 양개의 탑이 모셔져 있다.

에 해동의 사무외대사(四無畏大士)라고 불렸던 이엄(利嚴)·경유(慶猷)·형미(逈微)·여엄(麗嚴) 등 기타 고려 초기에 중국의 조동종풍을 해동에 전래한 선자들의 면밀한 행지와 깊은 관련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엄은 속성이 김(金)씨로서 오늘날의 충남 서산 태안면에서 870년에 태어났다. 출가하였고, 17세 때 구족계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지계청정의 삶으로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한 가풍을 몸에 익혔다. 27세(896) 때 입당하여 운거의 문하에서 수행하여 인가를 받고 42세(911)에 귀국하였다. 이후 승광산(勝光山)의 사찰에 12년 동안 주석한 후에 영각산(靈覺山)의 토굴에 주석하자 귀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 태조의 칙을 받고 왕사가 되어 태흥사(泰興寺)에 주석하였다. 63세(932) 때 개경의 서쪽 해주의 남쪽에 광조사(廣照寺)를 짓고 주석하다가 67세(936)에 좌화(坐化)하였다. 이엄의 가르침인 "대저 도란 곧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대상의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은 일찍이 운거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었다. 이엄이 운거를 친견하고 인가받은 내용은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다. 동산의 종지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산의 법을 중흥시킬 자는 바로 그대이다. 이제 내 가르침은 그대로 말미암아 동국으로 흘러갈 것이니, 시절인연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면밀한 괄골선의 전승자로서 운거의 인가를 받은 이엄은 귀국한 이후에도 항상 게으름이 없었고,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엄은 태조의 후원을 받아 수미산의 일파를 이루었다.

경유의 속성은 장(張)씨이다. 15세(885) 이후로 선지식을 참하였고, 18세(888) 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선법을 닦기 위하여 입당하여 운거 도응에게 참문하였다. 운거 도응은 "말을 걸어보면 선비임을 알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는 곧 만 리에 떨어져 있어도 그 교화를 떨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인(心印)을 전승하였다. 38세(908) 때 귀국하였고, 전란을 피해 산속에 묻혀 살았지만 고려의 태조는 경유를 왕사로 예우하였다.

형미의 속성은 최(崔)씨이다. 장흥 보림사로 가서 보조 체징(普照 體澄)의 가르침을 받았다. 19세(882) 때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입당하여 운거 도응을 친견하자, "그대가 돌아왔으니 미리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대가 법을 펴고자 하니 법의 보배가 감추어져 있는 곳을 알려 주겠다."고 기뻐하였다. 42세(905) 때 귀국하여 무위(無爲)의 갑사(甲寺)에 주석하였다. 태조의 청을 받고 개경에 나아가서 자취가 끊어진 공사상에 대한 법문을 하고 선리(禪理)를 설하였다. 54세(917)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여엄의 속성은 김(金)씨이다. 9세(870) 때 무량갑사(無量壽寺)의 주종법사(住宗法師)에게 출가하고 화엄교학을 익혔다. 19세(880) 때 구족계를 받고, 이후 안거를 나면서 계를 철저하게 지켰다. 이후 선종에 입문하여 보령 성주사 광종무염국사(廣宗無染國師)에게 참문하고 입당하여 운거 도응의 문하에 들어갔다. 이에 운거 도응은 "그대와 이별한 지가 그다지 멀지 않은데 여기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에 있을 때 그대가 찾아 온 것이 다행이구나."라고 하면서 여엄을 위해 법을 아끼지 않았다. 법을 전수받고 귀국할 즈음에 운거는 "그대가 나면서 울 곳은 바로 고국이니 속히 돌아가거라. 내가 바라는 바는 진공(眞空)을 진작하여 우리의 선종을 빛나게 하며 법요를 잘 보존하는 책임이 그대에게 있음을 명심하라.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하였다. 48세(909) 7월에 귀국하여 충주 월악산과 경북 영주에 머물다가 소백산으로 들어갔다. 이후 태조의 초청을 받아 개경에 나아갔고, 태조의 주선으로 지평의 보리사(菩提寺)에 들어가 교화를 하다 69세(930) 때 입적하였다.

이들 사무외대사 가운데 형미와 여엄은 공사상에 근거한 가르침을 펼쳤고, 이엄과 경유는 심법의 본성을 깨쳐 일상화에 근거한 법을 펼쳤다. 이것은 사무외대사가 지니고 있는 사상의 전반적인 기조는 당시 전란으로 혼란했던 국내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점은 중국에서 선종이 일찍이 경험했던 법난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주로 산악형의 자급자족을 유지하고 있었던 선종의 교단은 법난을 계기로 하여 오히려 교학불교와 상대적으로 새롭게 번창하여 독자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선풍을 드날리게 되었다. 곧 전통적인 경전의 연구나 주석과 틀에 박힌 계율의 생활을 벗어나 임운무작(任運無作)의 일상생활을 실천하였는데, 그러한 평상시의 생활에서 불법의 참된 정신을 구현하는데 앞장섰던 선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시까지의 일체의 형식과 교의에 걸림이 없이 자유로운 선풍을 펼칠 수 있는 전환기가 되었다. 그것은 한 결 같이 위의(威儀)가 적절하게 갖추어진 선자들의 면모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유학하여 이와 같은 행지면밀의 조동가풍을 전승한 신라의 선자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일찍이 유학했던 선법 전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교학을 공부하고 새롭게 눈뜬 선법에 대하여 그 한계를 느끼고 입당하였다. 둘째는 귀국하여 왕실과 유대관계에 의하여 왕사 내지는 국사에 책봉되어 실질적인 국사의 자문역할을 하였다. 셋째는 수미산의 이엄과 동리산문의 경보(慶甫)를 제외하고는 소위 구산선문과 관련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넷째는 현실생활에 대한 강한 긍정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사무외대사를 비롯하여 운주(雲住) 및 경보, 기타 다수 조동선법의 전래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고려가 삼국통일을 달성하기 이전으로 아직은 전란이 계속되고 있는 무렵이었다. 따라서 현실생활에 대한 강한 긍정의 사상과 아울러 그로부터 초연하려는 공사상의 기반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절이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처럼 조종종풍의 성격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도면밀하고 용의주도한 사상이었기에 그 시기에 가장 소용되는 가르침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말여초의 제2기 선법 수입기에서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풍이 주류로 전래된 이유였다.

〈동국대 HK교수〉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각종 사찰 안내판 (문화재)
제작전문업체
※ 모든 안내판은 태양광 조명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 문화재·사찰 도로교통표지판 • 종합관광안내판 • 유도 안내판
• 사찰 내 게시판 • 각종 안내판 일체



사찰의 각종 안내판 제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디자인, 제작·설치, A/S까지 책임시공!
산업디자인(종합) 인증업체, (주)김스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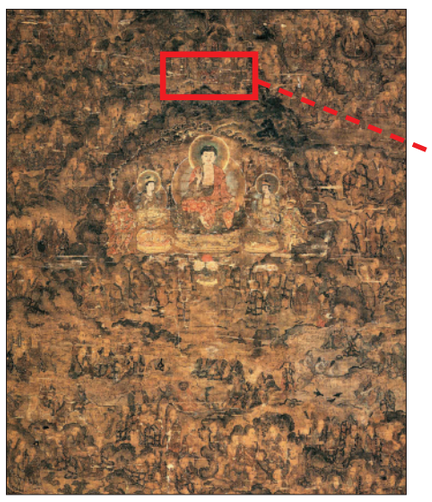
Kims AD (주)김스애드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474(망우동) T. (02)437-9151 / HP. 010-2224-9151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⑦ 오백나한도와 원효 대사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지은원에 소장된 〈오백나한도〉의 석가삼존 도상 뒤에는 원효 대사 진영이 그려져 있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수염 등 인간미 넘치는 묘사는 해당 인물이 원효 대사임을 알게 해주는 특징이다.

오백나한 한 가운데 원효대사 '우뚝'



그림①



그림②

日교토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
석가삼존 뒤 원효 대사 진영 담겨
까만 피부, 수염 등 인간미 묘사
삼원법 활용한 산수 표현들 '압권'

그림①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의 중심 부분. 고려시대에 조성됐다.

그림② 원효 대사 진영. 〈오백나한도〉의 석가삼존 뒤편에 그려져 있다. 까만 피부, 수염 등 인간미 넘치는 표현은 해당 인물이 원효 대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백나한 물결치는 파노라마

〈오백나한도〉를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산세 풍경은 무수한 나한들로 해체되어 버린다. 그리고 다시 뒤로 물러나면, 제 각각 개성 넘치는 나한들은 배경으로 융해되어 버린다. 산봉우리가 나한이고 나한이 산봉우리다. 고려불화 〈오백나한도〉는 길이 2미터에 달하는 대작으로, 독특한 구도와 기상천외한 형식으로 이름 높다. 중국 남송 시대에 대유행한 나한신앙은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에서 두루 유행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지만, 오백나한을 한 폭에 모두 그린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또 구도적 측면에서, 산수를 배경으로 불교적 내용을 앉혔다는 점에서, 〈관세음보살32응신도〉(조선 전기 제작, 교토 지은원 소장)에 필적하는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중앙에 그려진 '원효 대사' 진영

작품 한 가운데 크게 그려진 석가삼존과 위로, 붉은 비단 의자에 앉은 노스님이 보인다. 그런데 바로 원효 대사가 아닌가! 시커먼 피부, 확 올라간 눈꼬리, 턱 수염, 전형적인 원효 대사의 모습이다. 뭇 스님들이 원효 대사를 둘러싸고 합장 경배를 하고 있다. 원효 대사는 너무나 개성 강한 특징을 가졌기에, 많은 진영(고승의 초상화) 중에서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원효의 실제 용모와 가장 가까운 유일한 작품인 〈원효 진영〉(일본 교토 고산사 소장, 현재 교토국립박물관 기탁 보관)과 흡사한 모습이다.

〈원효 진영〉과 함께 소장되어 있는 〈의상 진영〉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으로 원효대사의 특징이 드러난다. 의상은 뽀얀 피부에 훤칠한 이목구비, 고급스런 비단 금 가사에 부드러운 투명 장삼, 꿩 깃털 불자를 손에 들고 있다. 진골 귀족으로서의 우아한 풍모가 한껏 드러난다. 반면, 원효는 우선 까만 피부에 찢어진 눈, 지저분한 턱수염, 얼굴선도 반듯하지 않고 코와 입부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마치 감자와 같은 얼굴 형상이다. 희고 팽팽한 의상 스님의 피부와는 대조적으로 새까만 피부에 이마에는 세줄 주름이 기본이고 눈과 목까지 주름이 있다. 갈색 가사도 매우 소탈하다.

하지만,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총기와 주름 가득한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깊은 연륜, 그리고 방치된 수염에서 느껴지는 자유와 인간미. 이런 특징들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어떤 고승의 진형보다 원효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들이다. 대략 요약하면, 까만 피부·눈꼬리가 올라간 날카로운 눈매·깍지 않은 수염·허름한 갈색 가사는 원효 대사의 전형적 특징으로 〈화엄종조사회전〉의 〈원효도〉(가마쿠라 시대, 일본 교토 고산사 소장)에서도 이 같은 특징을 고스란히 갖춘 원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까만 피부는 원효 대사의 전매특허다. 이러한 대사의 모습이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속에 있다니! 삼존불 바로 위의 정 중앙에 원효대사가 있고, 그 주변 좌우로 따로 구획되어 그려진 스님이 두 분이 더 계시다. 한 분은 토굴에서 홀로 명상에 잠겨있고, 나머지 한 분은 육환장을 들고 거대한 구렁이를 좌복 삼아 앉아 계신데, 아직 어떤 유명한 선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원효 대사는 고려시대에 원효보살 또는 원효성사라고 존칭되었다. 또 고려 숙종 때는 대성화쟁국사(大聖和諍國師)라는 시호가 내려질 만큼, 우리나라 고유 불교의 핵심인물로 '해동법사(海東法師)'로 일컬어지며 재조명 받았다.

곽희풍 산수, 수준 높은 삼원법

오백나한을 품고 있는 산수 배경은 매우 경이롭다. 특히 그림의 상단 부분을 보면, 아마추어로서의 산수가 아닌 본격적인 곽희풍의 산수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산수 아류로서의 (조선시대에 흔히 보는) 지방 화풍이 아니라, 본토를 능가하는 품격의 산수이다. 곽희의 '삼원법(三遠法)'이 유려하게 갖추어져 있다. 삼원법이란, 평원(平遠, 수평시)·고원(高遠, 앙시)·심원(深遠, 부감시)를 말하는데, 동양 산수의 근간이 되는 기법으로 곽희가 창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기존에 난무하던 다양한 형식과 양식의 표현 기법을 북송 화원 화가 곽희가 명료하게 통일하고 체계화했는데, 그 골자가 삼원법이다. 이 삼원법을 적절히 섞어 풍경을 그리면, 아무리 손바닥만 한 작은 화면이라도 천지를 담을 수 있는 깊이와 공간감이 생겨난다. 그래서 감상자는 천지를 한 눈에 보고 그 속으로 빨려드는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오백나한도〉의 산봉우리와 능선, 언덕과 계곡은 매우 그로테스크하다. 그 봉우리들 사이로 폭포가 흐른다. 그 스케일이 매우 장대함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데, 곽희의 대작인 〈조춘도(早春圖)〉를 연상케 한다. 〈오백나한도〉 속에는 〈조춘도〉에 못지 않는 삼원법의 진수가 구현되어 있다.

수행자 최고 목표 '아라한'

'오백비구'라는 용어는 니까야 경전, 특히 석가모니 붓다께서 상주하며 설법하신 제따나와 숲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법화경〉의 유명한 '오백제자수기품'에도 오백제자가 나온다. 또 오분율·사분율에 따르면, 스승 붓다의 입멸 후에 그 가르침이 잊혀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1차 결집이 이루어졌고, 이때 모인 제자들을 오백나한이라고 하고 있다. 오백나한은 붓다의 정법(正法)을 사수하고 전수하는 제자들 무리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는 청중으로서, 그리고 그것의 전법자 또는 수호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대승불교의 나한 신앙은 일찍이 중국 남송 시대부터 성행하였는데, 나한이 독립적인 신앙대상으로 숭배될 때는 주로 십육나한이 채택된다. 이러한 독립적인 나한신앙의 유행은 십육나한의 이름과 주거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법주기(法住記)〉(당나라 현장법사 번역)에 근거한다. 나한 신앙은 십육나한에서 다시 오백나한으로 극대화된다. 명판(明版) 속장경에 수록된 '남송강음군건명원나한존호비'에선 오백나한 한 명 한 명의 존명을 찾아볼 수 있고, 이를 근거하여 무수한 나한도가 그려졌다. 하지만, 이미 언급하였듯이, 오백나한을 하나의 대형 화폭에 한꺼번에 그린 작품은 본 〈오백나한도〉가 유일무이하다.

초기 불전을 보면, 수행 제자들이 얼마나 아라한의 경지를 목표로 아라한과에 드는 것을 동경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금강경〉과 〈법화경〉에는 이러한 경향에 일침을 놓는 붓다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 그 일침의 내용은 '아라한과에 머물지 말고 성불(成佛), 부처님이 되라'는 것이다. 오백 제자에게 부처님이 수기(授記, 미래에 성불하게 되리란 계시)를 주신 이유. 바로 이것이다.

한 사람이 친한 벗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 그때 그 친한 벗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옷 속에 매어주었다. 그 사람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깨어나 유랑을 떠나 먼 나라에 이르렀다. 그는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온갖 고생을 다 겪은 터라 조그마한 것이라도 무조건 소득이 생기면 기뻐 날뛰며 거기서 만족을 구했다. 훗날 그 친한 벗이 우연히 다시 그를 만나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서글프다 친구여, 어찌 살기 위해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예전에 네 안락함을 위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네 옷 속에 매어놓았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것이 아직 네 몸에 있을 텐데 이를 알지 못하고 고생이 막심하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제 이 보석으로 필요한 것을 구할지니, 항상 원하는 바대로 되어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 계주(繫珠)의 비유'

즉, '아라한'을 '조그마한 소득'에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 즉 '불성(佛性)'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조그마한 이익에 묶여 안주한다고 지적한다. 부디, 아라한의 경지에 머물지 말고, 성불의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가르침이다. '나' 하나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이웃'까지 모두 구제하는 불보살이 되라고 설했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사찰명·직인 공고

◈ 사찰명 변경 ◈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사

→ 대한불교조계종 **덕산사**

상기 사찰은 불기 2565년(2021년) 3월 12일부로 사찰명을 변경하고 주지직인을 공고하오니 이전 직인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청 덕산사 **일광**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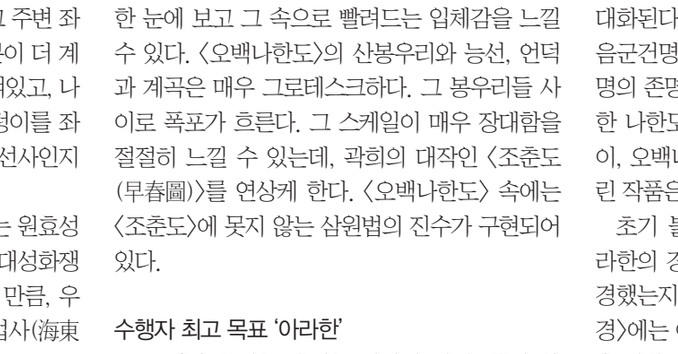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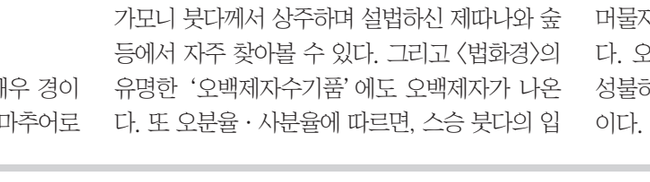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 연꽃칠성촛대 / 연꽃촛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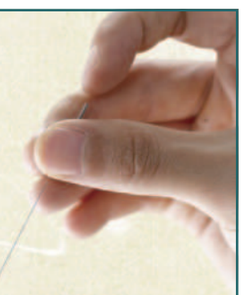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 연꽃 크리스탈 촛대

✻ 양초 보시 대행 ✻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우공침술 개인지도



우공침술의 TLS 침법은 근육의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을 기계적으로 자극하여 몸의 통증을 멈추게 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통증유발점을 기술적으로 자극하는 침법이므로 경락의 경혈들과는 무관한 과학화된 침법입니다. 따라서 통증치료에 관한한 TLS 침법이 단연 으뜸임을 자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TLS 침법을 개인지도를 통해서 딱 6일 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TLS 침법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침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딱 6일 만에 고통스러운 통증은 물론,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고 멋진 전문 침술인으로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우공침술원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완벽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지방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우공침술'을 치시면 저의 블로그에서 '신보선의 침의학과 건강·의학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4054-7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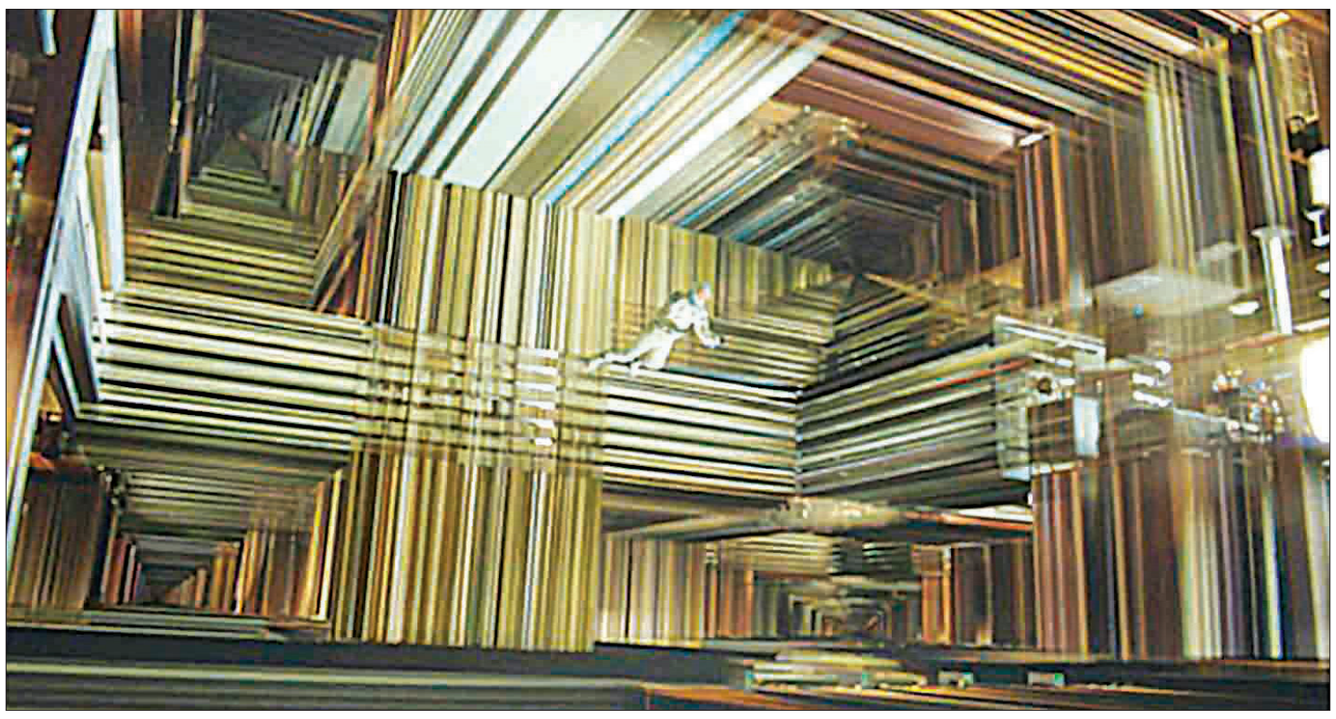
우 공 침 술 연 구 원

김혜신의 시네마 만다라 ❸ 〈인터스텔라〉와 諸法無我



▶ 한줄 요약
한국에서도 흥행한 〈인터스텔라〉는 단순한 SF영화를 뛰어넘는다. 노벨물리학 수상자까지 제작에 참여한 〈인터스텔라〉는 과학과 인문학, 시각예술의 집약체다. 특히 마지막 '테서랙트' 장면은 불교의 인드라망을 표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과학을 시각예술로…'인드라망' 표현



영화 〈인터스텔라〉의 테서랙트 유영 장면. 이미지의 원형은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에 있다. 영화는 해당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복합적 우주 현상, 즉 과학과 제법무아적 사고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 현상을 보여준다.

행성 여행서 인간 여행으로

'인터스텔라(Interstellar)'는 행성 간 우주여행과 시공간 여행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면에는 은하계 여행만큼 위태롭고도 경이로운 인간 간(間), 즉 사회적 의미로 축소할 수 없는 인연생기(因緣生氣)의 원리를 꿰뚫는 여행이 투영돼 있다. 이는 웜홀이나 블랙홀, 양자역학, 5차원적 시공간과 같은 문제들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속에 펼쳐놓은 과학영화로 애호될 측면도 다분하나, 단순한 SF 영화로 그치지 않는다.

처음부터 승산이라곤 아예 없는 우주비행에 도전하는 등장인물 쿠퍼가 긴 세월 동안 죽음의 상황들을 차례로 극복하며 절체절명의 우주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동기는 어찌 보면 단순하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한다는 인간적 희망이자 후손들을 향한 무한 애정이다. 결국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비장의 블랙홀 중력 데이터를 획득하고 돌아온다. 여기에는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의 도움이 있다. 그리고 이를 모르스 부호의 형태 등으로 계속해서 어떻게든 3차원 세계에 있는 딸 머프에게 전달하고자 애쓴다. 이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C. Nolan)이 런던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이력이 있고 철학적, 시적 소양을 지녔다는 점은, 작품이 지닌 풍요함을 말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면이다. 우선 〈인터스텔라〉에 깃든 정신을 효과적으로 환기하는 면에서, 영화에서 세 번 인용되며 여운을 남기는 딜런 토마스의 시를 짧게 인용해본다.

노인이여, 저무는 날에 소리치고 저항하시오./ 꺼져가는 빛에 항거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시오.(Old age should burn and rave at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브랜드 박사가 읊는 이 시에서 'Rage'는 아마 부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일종의 분심을 가지고 생의 끝까지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의지와 철학적 태도를 말할 것이다. 영화적 맥락으로 보자면, '노인'은 넓게 보아, 극심한 병충해로 인해 전 지구의 생물들이 피폐해가고 병원체가 번성하면서 산소는 결핍되어가며 미세먼지로 뒤덮여가는 위기 상황 앞에 놓인 무기력한 인간이다. 이 상황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생존할 만큼 취할 수 있는 몇 알의 옥수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후대의 자손과 인간 가족들을 위해 병들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문명과 생명의 빛을 살리려는 투지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대손손 노력을 이어가며 그 빛을 살려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라는 자력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출구가 없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실낱같은 가능성을 찾는 나사(NASA)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전 생애를 우주공간에서 떠돌게 되는 쿠퍼 또한 결국 브랜드 처럼, 위태로운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어간다.

놀란 감독에게서도 우리는 이렇듯 자신의 분야에서 미지의 영역을 확장하고 연기적 사유를 실천하는 모습을 확인한다. 특히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러한 놀란 감독의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표현력이 범상치 않음이 입증되는데, 이는 과학적 지식이나 영화 기교만으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경지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시네마가 그 탄생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잠재성을 최대로 끌어내어 과학과 인문학과 시각예술을 한 편의 작품 속에 집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보인다. 〈인셉션〉에서 〈테넷〉에 이르는 일련의 대표작에서 보듯이, 그의 작품은 매번 새롭다. 그 중에서도 169분에 달하는 러닝타임을 가진 〈인터스텔라〉(2014)는 첫 개봉 시 한국에서 천만 이상의 관객을 모은 바 있다.

그는 여기에서 오랜 기간 쌓은 내공과 이미지 예술가이자 일종의 첨단 융복합 인문학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2017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킵 손(Kip Thorne)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영화 기획이나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작품은 놀란을 구심점으로 이루어진 예술과 과학의 상호 대화와 균형 잡힌 통합적 작업을 잘 보여준 표본으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융합'이라는 말이 과학에 의해 전유되고 인문학이나 인간학은 사실상 도외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장식화 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눈여겨 참고할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유례없는 협업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인터스텔라〉이며, 이 중에서도 작품의 마지막 시퀀스는 백미 중 백미이다. 여기에서는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모든 현대과학에 대한 논의들과 인문학적 사유, 그리고 인류가 시도한 행성 간 여행(가령 보이저 1, 2 호를 통한)의 시간이 크리스탈처럼 결정화(結晶化)되어 빛난다. 이는 영화적 차원을 넘어 세계와 인간에 대한 고도의 복합적 이해이자 더할 수 없이 명징한 표현이라는 면에서, 해당 장면을 잠시 상기해보고자 한다.

SF 영화 넘어선 〈인터스텔라〉
과학 · 인문학 · 예술 한데 집약
마지막 테서랙트 장면이 '백미'
불교 '제법무아' 사상 담겨있어

5차원 시공 속 '시방삼세 제망찰해'

과학의 눈으로만 보면, 마지막 장면에 시각화된 것은 복합적인 '테서랙트'이다. 이는 킵 손이 영화가 나온 이후 직접 그 세부에 대해 밝힌 〈인터스텔라의 과학〉에 설명돼 있다. 간략히 말하면, 쿠퍼가 죽음의 블랙홀을 통과해 최단속 시간여행을 통해 딸 머프의 방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는 영화적으로 4차원 초입방체(hypercube) 테서랙트다. 큐브(3차원으로 생각하면) 캡슐처럼 여기에 싸여 쿠퍼는 보호받고 딸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전하게 된다.

이는 킵 손에 따르면, 우주 속에 있는 초고도 문명을 가진 어떤 존재의 도움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테서랙트라는 입방체는 이를테면 그것을 운반한다 할 수 있는 '벌크 장(bulk field)'이나 웜홀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4차원 테서랙트로부터 보면, 모든 3차원의 시공간을 한눈에 찰나적으로 볼 수 있고 특정 지점으로 이동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비록 여기에서 나가서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유령처럼 존재한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과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면의 묘미는 과학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과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는 세계, 즉 불교적 세계관이 나란히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필 높은 서가와 책들의 미장센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 이미지의 원형은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에서 온다. 이 '도서관'(우주의 상징인 대문자 'Bibliotheca')의 한 서가에서 종교적 · 문화적 · 과학적 차원이, 그리고 3차원 세계와 4차원 이상의 세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하나로 만난다.

보르헤스의 우주적 도서관은 현재의 사람들에게 불가해한 신적인 것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시공간이며, 모든 인간은 그 속을 헤매는 "불완전한 사서들"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우주의 어떤 책장에 그러한 총체적인 책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미지의 신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책을 들춰보고, 그것을 읽어본 사람이 있기를 기도했다. 만일 영광과 지혜와 행운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되게 하소서. 비록 나의 자리가 지옥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존재하게 하소서. 내가 능멸을 당하고 죽어 무(無)로 사라져버린다 해도, 단 한 순간,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당신'의 거대한 '도서관'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해주소서."

물론 이는 불교에 한정될 수 없는 종교적 성찰이자 기도이나, 그 본질은 구원의 기독교보다는 무아와 공(空)사상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부까지 표현해보고자 한 놀란의 시도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영화는 이렇듯 말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하여 한눈에 복합적 우주 현상, 즉 과학과 제법무아적 사고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 현상을 보여준다. '나는 현재의 무수한 존재들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비롯한 미래의 무수한 존재들과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혹은 '시방삼세 제망찰해'의 진리를 가시화 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 그렇게 무량한 세계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세계가 서로 무한으로 관계하여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몸이 되어 있는 세계(김사업,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수업〉 中)"를 뜻한다. 시방삼세(十方三世)는 공간적, 시간적 우주(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말이며, 제망은 제석천의 보망(寶網)을 말한다. 이 망은 각각의 그물코마다 보주(寶珠)가 붙어서 각각의 코에 달린 각각의 보주는 서로 교착되고 서로를 비추면서 빛을 낸다. 말하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어져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는 현상계이다.

〈인터스텔라〉의 이미지는 이와 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시각적으로 이 장면에서 스크린 위에서 무수히 빛나는 거미줄 같은 투명한 선들은 우리에게 저 인드라망을 목도 내지 상상하게 한다. 대형화면, 특히 아이맥스 버전을 통해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는 인지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스크린 전경에 드리워져 미세하게 진동하며 말로 형용이 불가한 생기를 뿜는 이 무한한 선들로 짜인 우주적 그물, 그리고 그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한 인간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압권이다. 여기에는 과학과 불교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우주의 섭리,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하므로 저것이 발생한다'는 양자물리학적인 무아 사상과 시공간의 상대성, 가족과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유대감, 자리이타의 원리에 대한 관찰이 압축적으로 들어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어려우나 때로 삶에서 양자적 중력만큼 강한 힘을 발생시키는 가족 간이나 연인 간의 사랑의 자력(磁力), 그리고 무아의 실천 차원까지도 결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모종의 병원체가 지구를 초토화한 작품의 상황처럼 제어불능의 바이러스로 인해 문명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우리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인터스텔라〉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한 장면과 그 지혜의 빛을 복기해본다. 〈영화 · 문화평론가〉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리암
• 주 지 : 지명 (속명 : 이금복)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31번길 4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일회성인 인연은 거의 없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⑬ 부루나의 수기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들은 여기 부루나 미다라니자를 보느냐? 내 항상 그를 설법자 중 으뜸이라 칭찬했으며, 또 항상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찬탄했노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법을 도와 지키며 설하여 능히 사부대중 가운데서 법을 가르쳐 격려하고 기쁘게 하느니라. 부처의 바른 법을 제대로 해석하여 함께 범행을 닦는 이들에게 큰 이익을 끼치나니, 여래 제외하고는 그의 언변을 따를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부루나가 나의 법만을 지켜 도와 설한다 여기지 말라. 또한 과거 90억 부처님 처소에서도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지켜 도와 설했다. 언제나 법을 설하는 자 중 으뜸이었으며, 또 제불이 설하신 공의 도리도 잘 통달했으며, 네 가지 걸림 없는 지혜를 얻었느니라. 항상 잘 생각하고 이를 밝혀 훌륭하게 법을 설하여 의혹이 없었으며, 보살의 신통력을 갖추어서 그의 목숨이 다하도록 언제나 범행을 닦았느니라. 그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참다운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부루나가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으며, 또 한량없는 아승지 수의 사람들을 교화하여서 아뉴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루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佛事)를 하여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비구들이여, 부루나는 또한 과거의 칠불(七佛) 때에도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었고, 지금 나의 회상에서도 설법자 중에 으뜸이며, 현겁 중에서나 미래의 여러 부처님 때에도 설법자 중 으뜸이 될 것이니라. 그때마다 부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도와 설할 것이며, 오는 세상에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의 법을 지키고 도와 설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이익 되게 하여 아뉴다라삼먁삼보리 이루게 할 것이다. 언제나 부처님 국토를 청정히 하기 위하여 정진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리라."

〈법화경〉에는 수기(授記)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사리불을 위시해서 10대 제자, 5백 아라한, 또 2천 아라한, 심지어 제바달다까지 수기를 받는다. 위의 본문은 부루나에게 수기를 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법화경〉 설법 특징 중 하나는 이 세상에는 일회적인 인연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걸쳐 이어지는 연속되는 인연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성불이 '구원성불(久遠成佛)'이듯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연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출세간의 인연이다. 현상 속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 전개가 시간적으로 무수히 반복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이 대승의 최고 경전인 〈법화경〉과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다. 시간이 무시무종(無始無終)이고 공간이 무한무변(無限無邊)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단일적인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계도 삼세제불(三世諸佛), 시방제불(十方諸佛)설이 나온 것이다. 중생이 생사를 거듭한다는 윤회설이나 십이인연설 같은 근본교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인연의 연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속이 실체가 없어 모두 공(空)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중관론〉에서 말하기를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을 나는 '공(空)'이라고 말한다. 거짓된 이름이라고도 하며, 중도의 이치라고도 한다.(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亦為是假名 亦是中道義)"고 하였다.그러나 비록 공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상계의 모든 존재가 과거의 존재이기도 하고 미래의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존재의 의미를 한정 없이 확대해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종교적 의미는 인생의 의미를 무한히 확대해서 해석하는 데 있다. 인생은 결코 단일적인 존재이거나 일회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생론(單生論)이나 재생론(再生論)이 아닌 다생론(多生論)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이고 동시에 미래의 나이다. 비록 생멸하는 가아(假我)로서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불생불멸하는 진아(眞我)의 나라고 하는 열반의 덕에서 말하는 나인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교단분열, 다른 계율 견해서 비롯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⑬ 부파불교와 율장

대승불교가 이전의 불교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전의 불교를 전적으로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승불교라는 표현보다 부파불교(部派佛敎)라는 명칭이 더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불멸(佛滅) 100년 후 무렵에 불교교단은 상좌부(上座部)와 대중부(大衆部)로 분열되었다. 이 분열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계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십사(十事), 즉 일상생활에 관한 열 가지 사항이 계율을 위반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을 꼽는다. 상좌부에서는 열 가지 사항이 계율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식적인 판단을 수용했지만, 대중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계율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많아졌고, 그 결과 지말분열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분열로 많은 부파가 생겨났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 부파는 독자적인 교리와 율장을 만들었다. 공동생활을 하는 구성원들 간의 불화가 일상생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규칙이 공유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부파들의 명칭과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으며, 율(律)의 전승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상좌부불교(上座部佛敎)에는 팔리율이 전승되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에는 법장부(法藏部), 유부(有部), 화지부(化地部), 대중부(大衆部) 등의 율이 전해진다. 중국으로 전래된 율장(律藏)은 5세기 무렵에 본격적으로 한역(漢譯)되었다. 5세기 초에 불야다라(弗若多羅)와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의해 살바다부(薩婆多部), 즉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십송율(十誦律)〉 61권이 한역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축불념(竺佛念)에 의해 담무덕부(曇無德部), 즉 법장부의 〈사분율(四分律)〉 60권이 한역되었다. 또 중국 승려인 법현(法顯)은 기존의 율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 직접 인도에 가서 율의 범본(梵本)을 구해오기도 했다. 법현은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와 함께 마하승기부(摩訶僧祇部), 즉 대중부의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40권을 한역했다. 또 법현이 사자국(師子國)에서 구해왔다고 전해지는 미사색부(彌沙塞部), 즉 화지부의 〈오분율(五分律)〉 30권은 불타집(佛陀什)과 축도생(竺道生)에 의해 한역되었다. 네 종류의 율장 가운데 〈사분율〉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율종(律宗)이 성립되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는 사분율종(四分律宗)이라는 표현이 통용되었다.

8세기에는 인도에서 25년 동안 유학했던 의정(義淨)에 의해 근본설일체유부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 50권이 한역되었다. 이것은 의정이 중인도 남해(南海)에 유학할 때 대승교도(大乘敎徒)가 집지(執持)한 율로 전해진다. 이 문헌은 살바다부의 〈십송율〉 계통이 증강된 신율(新律)이며, 이전에 한역된 〈십송율〉은 설일체유부의 구율(舊律)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4세기에 축불념(竺佛念)에 의해 한역된 〈비나야(毘奈耶)〉 10권은 〈십송율〉 계통의 고율(古律)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존하는 율장은 부파교단의 율이며, 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금계(禁戒), 즉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에 대한 해설이다. 두 번째는 비구와 비구니가 행하여야 할 행지(行持), 즉 승가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세칙이다. 이로 인해 율장은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후대에 부파불교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⑬ 불음주계의 발단

과음하고 실수로 부처님 걷어차

〈마하승기율〉과 〈사분율〉 등에는 석가모니 당시 승단에서 음주가 금지된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 어떤 스님이 음식 공양을 받는 자리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꽤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나중에 그 스님이 숙취를 견디지 못하고 실수로 석가모니를 발로 걷어찬 것이다. 이것이 승단에서 금주를 결정한 계기였다고 적고 있다. 이 일화가 보여주듯이, 한때 불교는 술에 대해서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는지 모른다. 불음주(不飮酒)의 규정이 생겨난 것은 술을 먹었던 어떤 제자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처음부터 당시 사회에서 유용하고 있었던 음주문화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율장이 다소 후대에 각색된 것이라면, 술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는 다른 단서도 있다.

술에 대한 관용은 고고학적인 단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파키스탄의 고대 사원지 탁트이 바히(Takht-i-Bāhī) 인근에서 술잔이 발견된 적이 있다. 발우 크기의 이 술잔에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술을 마시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인도 북서부에서 포도를 길렀기 때문에 이 술잔은 아마도 포도주를 위한 술잔일 것이다. 그렇다면 대략 기원 전후까지도 우리는 술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단서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이때의 술은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포도 거르는 체가 승려 사이에 오갔던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술 빚는 일이 승단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일어났다는 단서가 된다. 또 다른 율장에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포도를 살짝 익혀 발효주를 만들어 음용하도록 권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아마도 고대 인도 사회 전체에서 처음부터 술이 현재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출가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상적으로 술을 빚고 마셨다는 증거는 꽤 많다. 불교 이전의 상황을 상기해보자. 소마(Soma)는 아마도 가장 일찍 인도 역사에 등장하는 '취기'나 심지어 '환각'을 주는 어떤 음료였을 것이다. 소마주는 대체로 베다 의례를 지낼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신들에게 바치고 사제들이 마시던 술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유와 섞어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소마가 광대버섯의 일종이라는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를 지내면서 과도하게 소마를 마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별도의 방법이 있었다. 즉 술을 과도하게 음복했을 때 마시는 별도의 술이 있었는데, 마치 술 먹은 다음 날 해장술로 속을 푸는 현재의 습관과 닮은 듯 보인다.

의례적인 상황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인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술을 먹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수라(surā)라고 부르는 술이 그것이다. 이것은 그 재료나 숙성의 상태로 보건대 와인이 아니라 맥주에 가까운 술이었을 것이다. 곡물을 숙성시켜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술이 의례에 사용된 경우는, 하나의 경우만 제외하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거의 일상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대 인도의 브라흐마나 문헌에 이 술의 제조법을 짐작할만한 내용이 산발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보리싹을 틔운 것을 말려 갈아 놓고, 그것을 지어놓은 밥과 함께 섞는다. 이것을 누룩과 함께 다시 섞어서 항아리에 물을 붓고 넣는다. 이것을 땅에 묻고 발효시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유를 함께 부어 3일간 땅 속에서 발효시킨다.

고대 인도의 문헌 속에서, 우리는 과일주나 곡물 발효주 등의 흔적을 보게 되는데 증류주의 흔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아랍인들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 증류법을 발달시켰고, 12세기 이후에야 유럽에서 증류주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견은 이미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경부터 증류주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페샤와르 동북쪽, 샤이칸 데리(Shaikan Dheri)에서 증류기가 발견된 것인데, 이는 아랍이나 유럽을 훨씬 앞선 것이다. 앞서 말한 간다라 지방의 술 문화의 흔적을 또 한 번 증명하는 셈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dongguk UNIVERSITY 東國大 미래와 힐링 융복합 最高경영자 과정 제4기 모집

시대를 관통하는... 동국대 '미래 예측, 힐링건강' CEO과정에 초대합니다.

〈미래학 + 동양미래예측학 + 자연건강(Healing) + 인문 · 문화〉

대한민국 리더의 미래와 건강, 사업에 실질적 도움 되는 차별화된 특화 AMP 과정

OT 공개 특강 *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 사전신청



원장 소재학 총괄교수

미래예측학박사1호
동양미래학자
명리학자
풍수지리학자

교과과정 및 커리큘럼

교과과정	* 매주 화(火) 18:00 ~ 21:00 * 동국대 학명세미나실 * 입학식 : 5월 11일			
	1교시 18:30 ~ 20:10 동서양 미래학, 자연 건강, 인문 문화 특강 2교시 20:20 ~ 21:00 자연건강, 힐링타임, 1주일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대기업 및 공기업 임원급 이상 경영자, 중소기업 대표, 금융계 언론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고위인사,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미래학	동양미래예측학	자연건강	인문·문화
커리큘럼	미래경영과 4차 산업 혁명	때를 찾는 지혜 동양미래예측학	Wellbeing Welldying	인문학
	미래변화와 생존, 혁신전략	과학화된 역학(관상 주역)	음식궁합 먹거리	법률
	미래전략 손에 잡히는 미래	부동산과 풍수지리	체질요법 힐링 명상	세무

	주 제	강 사	일 정
OT 특강	늙지 않는 비법 호르몬 관리	김세철 원장	4월 20일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	이만열 교수	4월 26일
	동양미래예측학으로 보는 현재와 미래설계	소재학 원장	5월 4일

* 초빙교수 : 이상희 전 과기부장관, 김홍신 소설가, 이계호 태초 먹거리학교, 박승주 전 여가부차관, 이만열(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전 미국 대통령후보, 김세철 명지병원 의료원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김중태 IT문화원장,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 박관식 한경TV 땅땅땅 외 * 원우 홍보대사 장미화 가수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CEO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 02-585-0079, 010-8335-8001

현대인을 위한, 명리·풍수 무료 공개특강!

東國大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12기〉 개강특강

현대 사주명리학 공개강좌

3월 31일(水), 4월 7일, 수업 : 매주 水 18:30~21:00 초급, 중급, 고급 과정별 수강 . 사전신청

왕초보도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 원리위주 가장 쉽게 공부하고 마스터하는 과정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학, 원리 위주 재미있게 OK!
성공 실패 시기, 창업 투자 시기, 때를 찾는 법 제대로 배우는 과정,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성명학) 마스터 과학화된 역학, 논리로푸는 사주학, 동양미래예측학 마스터 교강사 및 명리진로적성상담자 자격증 과정 겸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활용 학습용이
*예습 및 복습강의 영상제공 *수료후 마스터까지 무료 반복수강 가능

東國大 GFCA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9기〉 개강특강

명당찾는 풍수지리 공개강좌

4월 12일, 4월 19일, 수업 : 매주 月 18:30~21:00, 경제적인 등록금, 사전신청

기(氣) 좋은 터 찾는 법, 원리 위주 강의, 왕초보도 1년에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풍수지리,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게 해주는 자연과학, 교강사 및 풍수지리 지도사자격증 과정 겸비,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원리 위주 재미있는 공부, 국내외 실전 기 풍수지리 현장 답사 *강의 영상 제공





★소재학 총괄교수 동양미래예측학, 풍수지리 특별상담 진행★

동국대미래융합교육원 사주명리 풍수지리 최고위 사무국 02-3443-4984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35호 | 17 | 전면광고

향수를 만드는 사람의 몸에 향이 저절로
배는 것처럼 항상 염불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함께하나니 금생에 염불하는
공덕으로 극락에 왕생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수능엄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검 색★
GD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커피황토집짓기 영업사원모집
기능성 황토벽돌 집 커피전문상가, 숯황토벽돌 맥반석황토벽돌, 한방황토벽돌 홍송나무황토벽돌, 편백황토벽돌 해송황토벽돌, 35%착수금 나머지는 20년분납 0.3%이자
한식과학원 043-745-3332
영동군용산면율리길155-28

사주·구성학·명리
삼보에 귀의하옵고
사주(구성학 · 명리)
1대1 강의 단기완성
포교당 스님 · 찻집·카페하실 보살님 !
대전 010-5257-9731

명 상 쉼 터
30,000여평의 수려한 계곡 자연경관, 심산의 질 좋은 식수, 공기, 황토방 생활, 명상과 건강관리를 우선시하여 지내실 몇몇분을 기다립니다.
경제적 부담없이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802-7102

• • •
법명 : 지혜
속명 : 우숙향
2007~2009
강원도 정선 토굴에서 수행하던 스님
• • •
064-782-2564
010-8896-3191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비구·남여 행자·비구니스님 종도모집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아주 특수한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봅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영가 찾는법
YouTube 백암TV 무료강좌
•대상 : 왕초보반(포교원 운영자) •수강료 : 월10만원
백암역리원 02)597-1101 / 010-9150-2284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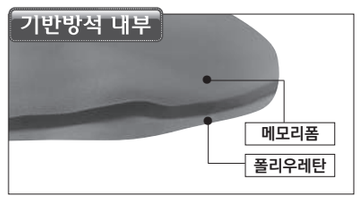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35호 | 18 | 전면광고

보살은 행하는 바에 대한 은혜의 보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입으면 항상 다시 갚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우바새계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300평
◎건평 : 100평,외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매가 : 40억

◎위치 : 경남
◎종교용지 : 약1800평
◎건평 : 40평외전각
◎종교시설, 요양시설추천
◎매가 : 8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지 : 1천평, 건물 : 400평
- 가액 : 39억
- 佛敎의現代化,佛法의生活化,布敎의大衆化 ● 불교컨벤션 ● 명상힐링캠프 ● 불교복지시설 ●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를 선도(先導) 하려는 스님, 보살님, 거사님께 적극 추천합니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담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지 안 내

- 위치 :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 절터적합, 남향, 긴동굴 있음, 계곡접함
- 총17,470평, 전900평, 산16,570평
- 가액 5억5천만원
- 상담환영

010-3618-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 835번지 300평, 836번지 130평 총 430평(샘물나옴)
- 포크레인 작업 완료(3년전)
- 암자, 산소, 별장(자리적당)
- 급양도 3천7백5십만원

010-7628-99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절충)

010-6355-6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 가액 : 1억

010-4156-377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 (사용가)
- 법당 / 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
- 가액 13억 5천만원

010-6325-5112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찰 (급) 안내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도심속 산중사찰(위치 좋음)
- 법당, 삼존불, 탱화 완벽, 산신각, 현대식 요사채
- 양도가 : 9,500만원(지상권), (년간 도지세 20만원)
- 조용하고 경치좋은 암자, 토굴기도 비구 비구니 스님, 역학하시는 스님, 보살 최적의 장소

010-7677-8385

옛날 전통 암자 안내

-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 약 1천평(등기 900평, 종교용지)
- 은행대출 1억5천 안고 2억4천9백만, 합계 3억9천9백만(공원같은 곳)
- 충북 괴산-동서울 약 1시간 30분 가량

010-3535-76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100평 ● 건물:법당25평.요사채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 혜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 전.월세가능
-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포 교 원 할 분

- 위치 : 서울 강서 화곡동 시장 옆 30평
- 보 500만, 월 50만 코너남향
- 공양주, 부전 할분, 쓸분 법당 철거, 폐기물 처리
- 결혼할 분 전화하세요.
- 남(45세)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유
- 회사대표, 1m80(서울거주)

010-5381-14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 가액 : 5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기도 정진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10-3428-277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림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윗길 28-17 ● 부지 : 500평(대지250평) ● 법당(16평), 종무소(6평), 창고(4평), 종무소2(18평 콘크리트 건물 신축), 요사체+휴게실+창고(30평), 산신각 ● 가액 : 4억 5천 만원(북원주IC 5분거리 서울 이동시간 적절)

010-8969-5014
010-2042-3724

전 원 주 택 지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정남향
- 계획관리지역 515평, 조경완비
- 138평 대지, 토목공사 완료
- 대지 198평 전원주택
- 가액 : 5억 5천

010-5023-10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충무로 전통시장 내
- 2층 86평
- 보증금 2천만, 월 66만원
- 시설비 : 3천만

010-3508-9321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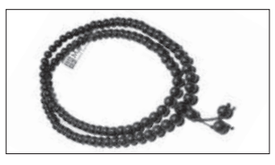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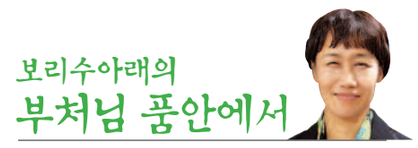


금강권보살

도상 상단에 있는 금강권보살은 금강수원에 속하는 보살로서 용맹정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강지혜의 망치로 삼독(三毒, 탐, 진, 치)의 번뇌를 부숴 없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십자 금강저는 갈마 금강저라고도 하며 갈마는 작업(作業) 또는 행위(行爲) 등의 의미를 말하고 좋은 일은 용맹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보살이다.

도상 하단에 있는 분노월염(忿怒月爓)보살에서 월(月)은 청정(淸淨)하다는 의미이고, 염(爓, tilaka)은 몸의 색이 검다는 의미이다. 얼굴에 삼목(三目)이 있으며, 이마의 눈은 지혜의 눈으로서 모든 장애를 파괴한다고 한다. 〈대일경〉에서는 대일여래의 변화신(變化身)으로 분노강삼세라 칭하기도 한다. 이 보살은 4해탈을 표현한다. 4해탈은 공(空), 무상(無相), 무원(無願), 자성명량(自性明亮)을 말한다. 위의 두보살의 진언을 수행함으로서 삼독(三毒)을 벗어나고, 사해탈(四解脫)을 성취(成就)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⑦ 발달장애음악인 최준



'피아노병창'이란 새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최준 씨는 장애를 떠나 한 사람의 음악인으로서 묵묵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佛心과 의지가 만든 '피아노 병창'

피아노 병창이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런 음악용어가 있었나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피아노 병창은 발달장애 2급 음악인 최준 씨가 만든 음악용어다. 올해 31살인 그는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한 국악인으로, 작곡과 연주활동을 하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하다.

"가야금+판소리는 가야금 병창, 피아노+판소리는 피아노 병창이에요"

최준 씨가 어느 날 말했다. 그것이 그만의 피아노병창 장르가 되었다. 피아노 연주와 함께 판소리의 한 대목이나 정가 단가 잡가 민요 등을 부른다.

최준 씨는 박록주 명창기념 '전국국악대전' 판소리 고등부 장려상(2009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기념 'MBC 스페셜 위대한 탄생' 대상(2013년) 등을 수상하였고, 2003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개인 공연을 비롯해 수십 차례의 공연을 펼치고 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KBS '인간극장', SBS '스타킹', EBS '다큐프라임'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발달장애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15개 법정 장애인 중 하나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구분하며, 인지와 언어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상호능력이 부족하지만,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성을 갖고 있으므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폐성 발달장애인 중에는 음악이나 수학 등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예가 많다. 최준 씨가 바로 그런 경우일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사물놀이를 배웠는데 뛰어난 음감으로 다른 아이들이 실수하면 그때그때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학원을 그만두었던 일화도 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받고 수업을 그만두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최준 씨 가족이 불교와의 인연을 맺은 건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 1~2년이 지났을 무렵 지인의 권유로 안양 한마음선원을 나가면서부터다. 최준 씨는 법당에 들어가면 부산스러움이 없어지고 절도 잘해서 108배로 이어질 정도였다. 그는 스님들의 염불소리를 좋아했으며 염불을 똑같이 따라 하기도 하고 예불문, 경전 등 스님의 염불소리와 법사스님의 법문, 도량 곳곳의 모습 등 사찰의 모든 것들을 소재로 작곡을 했다.

작년 8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남산국악당에서 작곡발표회 '서른나기'를 개최했다. 지난 10년간 그의 온몸으로 울림을 줬던 많은 순간과 소리를 국악 클래식 재즈 그리고 불교적인 음률로 작곡한 곡들을 선보였다. 특히 부처님 법이 담긴 '무상', 공(空) 사상을 표현한 '색즉시공 공즉시색' 등 불교음악을 큰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이기에 의미가 컸다.

2020년 9월에 프랑스에서 〈준이오빠〉라는 제목으로 최준 씨를 소개하는 책이 프랑스어로 출간되었으며 올해는 이탈리아에서 출간될 예정으로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 신체적 발달장애를 더하지 않고 오롯이 완성음악으로 보아주는 이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른다.

최준 씨 부모님은 발달장애를 키우면서 장애를 향한 세상의 무수한 오해와 편견 등 여전히 힘이 들지만 이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며 불교는 힘든 세상을 살아갈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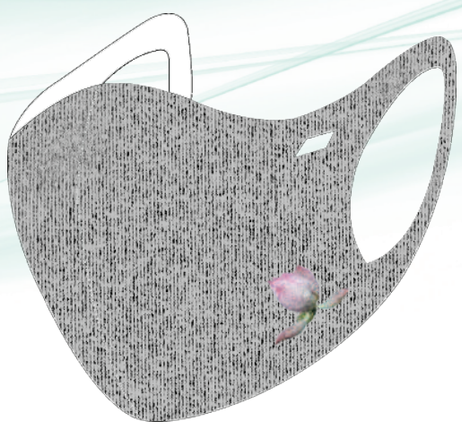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불자에 대한 인식개선은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아니다. 진정한 인식개선은 장애로 인해 생기는 '다름'을 바로 인정해주고 가진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최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명창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가 좋아하는 음악활동을 꾸준히 하며 그것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최준 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 아들의 장애를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들이 그의 피아노병창에 박수치며 감상하고 최준의 음악성을 인정해 비로소 발달장애소리꾼이 아닌 소리꾼 최준이 되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

천안제일로 시각장애인인 아나율과 발달장애인인 주리반특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부처님의 혜안과 살핌이 있었다. 장애인의 달 4월 부처님의 마음으로 장애불자들을 바라봐 줬으면 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❼ 미셸 데마르케, '9일간의 우주여행'



▶ 한줄 요약
삶의 가치 밝히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정토세계 연상, 티아우바 행성의 실상



미셸 데마르케 (Michel Desmarquet) 는…
프랑스 태생으로 오랫동안 호주에서 농부로 살아왔다. 58세가 되던 해인 1987년 6월 26일 자정쯤 외계인에게 '납치'됐다가 9일 만에 돌아왔다고 한다. 그가 경험한 '티아우바' 행성의 주민들과 그들의 삶은, 헤아릴 수 없이 먼 옛날 법장비구가 48가지 원을 세워 정진한 끝에 세웠다는 극락정토를 연상시킨다. '이미 성불이 결정된 정정취(正定聚)에 머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지구인들의 원대한 꿈과 이상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구인들에게 삶의 좌표를 점검하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책이다.



아름다운 빛깔 우주 풍경
천상 법음 들려주는 과정
인과와 연기의 사상 체험

정토세계와 지구인의 우주 여행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지구촌에 온 이상 누구라도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생은 앞과 뒤가 잘린 대하드라마의 한 대목을 사는 것과도 같아서, 전체의 대강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전생과 후생을 믿는다고 해도, 전생에 과연 내가 어떤 씨를 뿌렸는지, 후생에 내가 어떤 과보를 받을지, 알 길이 없어 아득할 때가 많다. 그 불투명성이야말로 중생을 수행으로 인도하는 촉매제일 테지만.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대하드라마가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인 〈자타카〉에 잘 나타나 있고, 수행이 익은 사람이 가게 된다는 '생로병사가 없는 영생의 이상향'에 대해서는 〈정토삼부경〉(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이 우리의 상상력을 한없이 부풀게 한다. 방대한 불경만으로도 전생과 내생에 관한 정보는 차고도 넘치지만, 마치 보충자료라도 되는 듯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전생담이나 '사후의 삶'에 대한 체험담(임사체험)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고 전체의 큰 줄거리 속에서 내 삶의 좌표를 찍어 보게 하는 탁월한 내비게이션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외계인을 직접 만났다거나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이 존재하고, 관련된 증언이나 책자, 영화도 적지 않지만, 본서를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저자가 묘사하는 행성의 주민들과 그 생활상이 불경이 묘사하는 '정토세계'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다. 1987년의 어느 날 밤중에 잠에서 깬 호주의 한 농부는 자기도 모르게 잠옷을 벗고 바지와 셔츠로 갈아입은 다음, 자기도 모르게 책상으로 가서 종이와 볼펜을 집어들고는 "여보, 10일 정도 어디를 다녀오겠소.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메모를 남겨두고는 정원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갑작스레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상하의가 하나로 된 옷과 투명한 헬멧을 착용한 엄청나게 키가 큰 여인의 안내에 따라 직경이 70m에 달하는 우주선에 승선, 초광속으로 우주 여행을 떠나게 된다.

진화된 행성주민들과 삶의 모습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안내자 '타오'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알고보니 자웅동체로서, 남성도 아니요 여성도 아니다. 타오가 사는 별의 주민들은 '근원'과 완전히 합해지기 직전 상태인 9단계에 도달한 '각자(覺者)'들로서, 수천 년 동안의 수명을 누리지만, 수천 년을 살고서도 '몸을 바꿔' 다시 태어날 수 있으므로 사실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모두가 자웅동체이므로 남녀간의 섹스가 행해지지 않지만, 섹스보다 더 큰 열락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으며, 언제나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고,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알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없다. 키가 3m 안팎이지만, 필요에 따라 키를 줄이고 늘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중부양 능력이 있지만, 속도가 느리므로 개인마다 공중에 부상하는 운반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시속 몇백 킬로m로 이동한다.

그들이 사는 행성 '티아우바'는 여러 면에서 불경에 묘사된 '극락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아난아, 아미타불의 나라인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가지가지 나무가 온 세계에 충만하여 있느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키가 큰 보배나무가 산들바람에 가지가 살랑거리면 한량없는 묘법의 음악이 울리는데, 이 음악은 이 세상 제왕들의 백천 가지 음악보다도, 전륜성왕의 음악보다도, 천억만 배나 더 훌륭하다. 극락세계는 청정하고 평안하며 미묘하고 상쾌하여 안온한 열반의 경계와 같으니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문과 보살과 인간과 천신들은 지혜가 한량없이 밝고 신통이 자재하며, 그 얼굴과 모습은 단정하고 미묘하여 세상에서 뛰어나 천상과 인간에 비교할 수 없나니, 그들은 모두 하염없는 법신과 그지없는 즐거운 몸을 가지고 있느니라."(아미타경 중에서)

티아우바의 자연 풍광은 지구인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빛의 20~50%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산과 강, 바다, 나비, 꽃 등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구인인 저자는 한 차례 기절하기까지 한다.

"우리는 대륙의 해안으로 빠르게 접근했다. 녹색, 검정, 주황, 황금빛의 바위들 위로 파도가 부서졌다. 한낮의 태양광선 밑에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무지개는, 오래 기억될 장관을 연출했다. 빛과 색깔의 띠가 형성됐다. 지구의 무지개보다 100배는 선명했다."

그런 바다 위를 밝은 분홍빛 날개 깃털과 밝은 녹색의 꼬리 깃털을 가진, 날개 길이가 4m쯤 되는 큰 새들이 날아간다. 키가 200m가 넘고 밑동의 지름이 20~30m에 달하는 나무들 사이로 양쪽 날개의 길이가 1m쯤 되는 영롱한 빛깔의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각종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가 아니더라도, 마치 먼 곳에서 동일한 멜로디를 끊임없이 연주하는 플루트 소리 같은 '매우 부드럽고 가벼운 배경음악'이 어디에서나 들려온다.

행성 진화단계와 '슬픔의 행성 지구'

타오의 설명에 따르면, 우주의 기본 패턴은 9개의 행성이 자신들의 태양(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태양계 9개는 다시 더 큰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 후자의 큰 항성은 전자의 9개 항성과 각각에 부속된 9개 행성의 공전 중심인 셈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이들 천체의 공전 중심인 우주의 중심이 나올 것이지만, 이런 우주가 얼마나 될른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행성 또한 9개 범주로 나뉘게 되는데, 티아우바는 9번째 범주의 행성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아쉽게도 지구는 첫째 범주의 행성으로, 가장 낮은 단계이다. 지구는 티아우바 주민들에게 '슬픔의 행성'으로 불리운다. 지구는 기초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는 '유치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범주의 행성은 좀 더 윗단계의 가치를 가르치는 초등학교에 해당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어른들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셋째 범주는 중등학교이고, 그 다음은 대학 과정으로 이어진다.

9개 범주의 행성들은 이런 식으로 그 발전 단계가 달라진다. 영적으로 발전할수록 윗단계의 행성으로 가서 우수한 생활방식과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유익함을 누리게 된다. 음식을 조달하는 방법도 훨씬 더 쉬워지고, 이는 다시 생활방식을 더욱 단순화시킨다.

티아우바는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낙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순수한 영혼이 되어 누리게 될 진정한 행복에 비하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타오의 해설이다.

티아우바인들의 주된 메시지

티아우바인들이 특정한 지구인에게 초광속 우주 여행을 통해 자신들의 행성을 여행하게 하고, 그 여행담을 책으로 써서 지구인들에게 알리도록 의도한 이유는, 지구인들의 앎과 지혜를 확장하여 장차 다가올 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구에서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된 지 1만 4500년이 지났지만, 이 기술은 '진정한 앎'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인류는 가까운 미래에 큰 사고를 칠 것이 예견될 만큼 위험한 생각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영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물질적 기술은 필연적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다. 기술은 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때 의미가 있으며, 지금처럼 인류를 물질주의와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인간의 물질적인 탐욕임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은 육신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어가는 영적인 존재다. 육체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영적인 발달이다.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학습도구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음 생애에서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티아우바인들은 이 책을 통해 지구인들의 기존 상식을 뒤집는 '충격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영혼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구상에서 경험하는 삶의 의미와 윤회 전생의 원리를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지구인들이 현재 잃어버린 지식과 과학에 대하여, 아스트랄 여행과 텔레파시, 공중부양, 마음의 발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한편, 가슴 벅찬 미래의 정토를 일견하게 하면서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수행 의지를 북돋아 준다.

〈작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35 호 현대불교
2021년 4월 7일(음 2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자기 모습 아닌 자기가 꼭 있음을 밝히도록 하세요

주인공이라는 기둥을 꼭 세워야 하나요

질문 그냥 놓으면 허무로 돌아갈까 봐 공의 자리를 중심 기둥으로 삼아 그 하나에 다 놓으라는데,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일진대 꼭 주인공이라는 것을 세우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첫째도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두 번째도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세 번째도 둘이 아닌 도리에서 둘이 아닌 나툼을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명을 벗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 상대성의 끈에, 인과의 끈에 의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첫째는 주인공이라는 중심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중심을 꿰어야만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말입니다. 차도 중심이 있으니까 바퀴가 굴러가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 없으면 목석이죠.

그래서 가는 것만 알았지 오는 거를 모르니까, 오는 거와 가는 거를 한데 합류화시켜서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은 중심을 세워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입니다. 이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건 내면에서도 한마음이요, 모든 내면세계의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도 나 아님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 하고 세워야 그 끈을 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잡고 실험도 할 수 있고 그걸 잡고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수련하는 것은 맡겨 놓는 작업입니다. 숙명통이 컴퓨터라면 거기에 입력이 돼서 악업 선업이 자꾸 나오는 것인데, 거기다가 되맡겨 놓아야만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고,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또 놓고 이래야만이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져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관하기도 하는데

질문 관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관해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마음을 내서 관해지기도 합니다. 바르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자유스럽게 하세요. 우리 사는 게 의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자유스럽게, 그렇게 안으로 내면의 참나하고 나 아닌 내 모습하고 말을 하려면 아주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죠. 자연적으로 말을 하고 또 그게 끊어져도 끊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이렇게 갔다가도 그냥 다른 거를…. 즉 말하자면 엎드러지게 한 놈도 그놈이고 일어나게 한 놈도 그놈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 아까 엎드려지게 했잖아. 그런데 또 지금 일어나게 했잖아.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니까 그 내면에서 하는 말이 "네가 밝으면 밝은 데로 찾아가고 어두우면 어두운 데로 가지 말아야지, 네가 어두운 데를 밝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엎드러지는 것 아니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거북하게 생각을 하고 거북하게 살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하고 바쁘고 그럴 때는 "엄마, 엄마" 불러도 "얘, 쪼금만 기다려." 그러고선 뭐 할 때가 있잖아요.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밀하게 믿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얘, 얘" 하고,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얘, 일어나, 빨리. 저기 문 끝에 불이 났어." 이러고 깨우거든요. 급하면 그렇게 깨우는데 뭘 걱정을 하고 그렇게 애쓰느냐는 얘기죠. 급하면 깨우게 돼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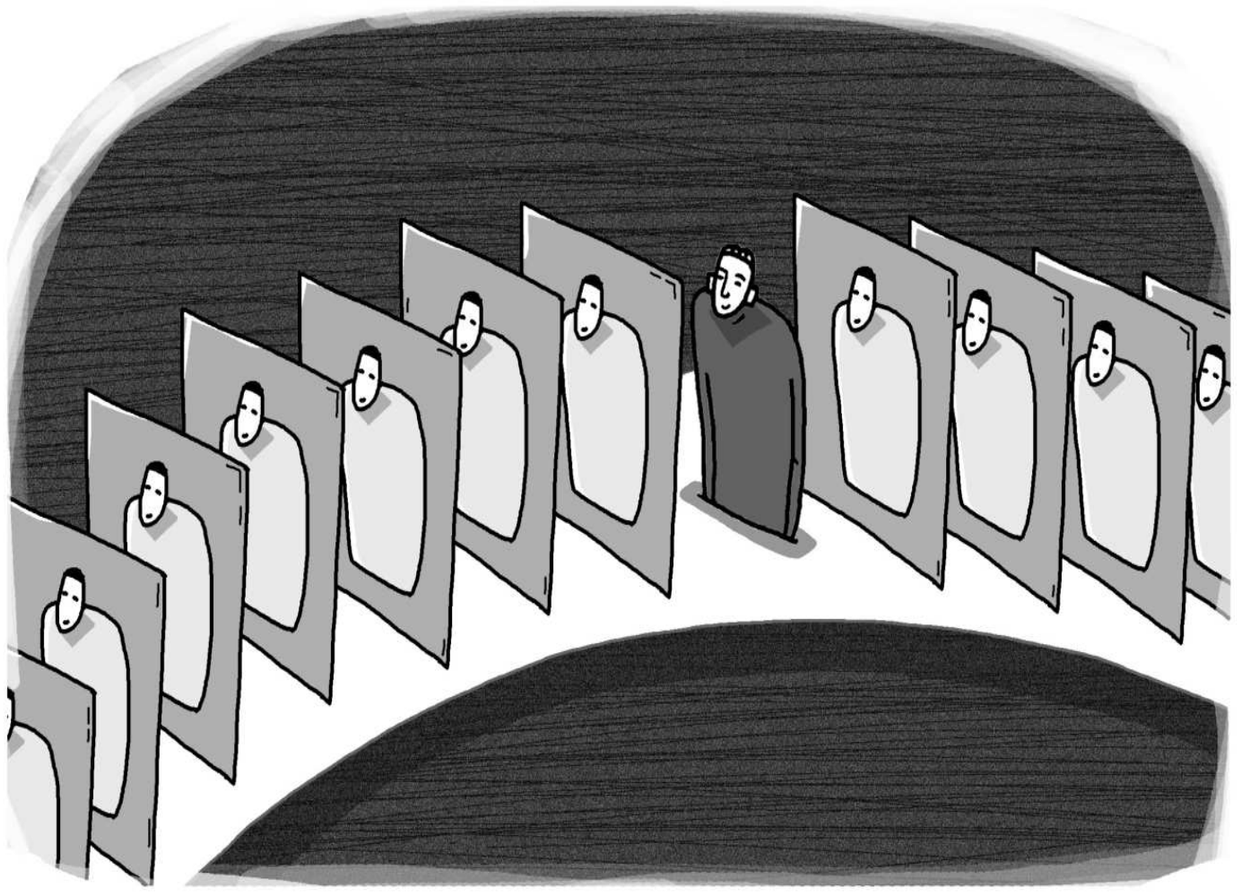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스님, 스님! 집을 비워 놓고 모처럼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 가서 한 며칠 있다 오는데 집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뭐, 가져갈 것은 없어도 없어지면 또 사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을 봐야만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길래 "아, 집 보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구석구석을 알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퍼뜩 알아듣고 "참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그러고선 가요.

가더니만 한 열흘 있다가 와서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아이, 저 집 지키는 어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갔더니 집에 오니까 아무 일 없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 감사하다 그러고 도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됩디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자는데 말입니다, 아마 도둑이 들어왔던 모양이죠. "애, 얘. 어서 깨라. 저 문을 열어 놓고 잤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구!' 그러고선 언뜻 생각이 퍼뜩 나서 나와 보니까 대문이 활짝 열리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고 이만한 목판같이 생긴 함이 있었는데 그걸 들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 함에 뭐 들었느냐?" 그러니까 "뭐, 들어 있는 거는 별로 없고 전자에 시아버지가 쓰시던 그 도구가 거기 들어 있는데 그걸 지고 갔어요." 그래요. "그럼 그걸 가져다 뭘 하려고 지고 갔지?"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고는 가면서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문 잠그고 자라고 그렇게 깨워 주셔서 우리 주인공이 제일이야." 그러면서 가더군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기 주인공이 그렇게 있어서 자기를 이끌고 다닌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닌 자기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고집이 세고 자기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자기를 믿지 않고 가면 그냥 믿지 않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깐 자기가, 자기 모습 아닌 자기가 꼭 있음을 밝히도록 하세요. 항상 밝히고 있지만 말입니다.

얽혀 있는 매듭을 잘 풀고 싶은데…

질문 저는 현재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남편의 갈수록 심해지는 폭력성 때문에 더는 괴롭고 살 수가 없어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소송을 걸겠다며 사람을 괴롭힙니다. 피가 마르는 고통과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 시어머님 그리고 저 사이에 서로 얽혀있는 매듭을 풀 수 있을는지요. 평소에 이 공부를 해 왔지만 너무 힘이 들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답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거 가만히 보세요. 금방에는 금이 있고 넝마전에는 넝마가

☞ 22면으로 계속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어집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차원끼리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 21면에서 계속

있고 깡통전에는 깡통이 있고 무쇠전에는 무쇠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말입니다. 상점에 가 봐도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고 배는 배대로 놓여 있고 끼리끼리 모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인연에 따라서 다 만난 인연들인데 만날 탓을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인연을 만난 거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연이 됩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인연에 따라서, 똑같은 차원에 따라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남의 탓을 한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따위로 하니까 망했다는 둥 또 잘됐으면 내가 잘해서 잘했다는 둥,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무슨 애정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는데. 점점 식어가지. 그러니까 행복은 없어지는 거죠. 행복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끼리끼리 만나서 그러는데, 자식들도 부모가 싸우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우거든요. 싸우기만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보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다 그대로 영향이 미친단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또.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파산이 되고 또는 행복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했다면 아내가 '아, 이것도 끼리끼리 만나서, 내가 있으니깐 저 남편을 만난 거니까 모든 게 내 탓이다.' 하고, 들어오면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준다면 그렇게 잘못하다가도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니….' 하고 따뜻한 데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부인이 그럴 때 남편이 그러고, 자식이 그럴 때 부모가 그렇게 하고, 그걸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요놈의 새끼! 어디 가서 자빠져 잤느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있었느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말이란 행동으로 붙들거나 말로 붙들어서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고장 난 거는 마음으로 고쳐야죠. 마음으로 '너만이, 주인공은 둘이 다 똑같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영(0)은 만 개를 갖다가 한데 놓아도 영(0)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자식이다 부모다 하고, 전기가 가설이 돼 있는 것처럼 가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둘이 아닌데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그렇게 관한다면 저절로, 마음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와서 저절로 집에 들어와서 착해질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다닐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떼어 놓은 거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또 듣는 거라든가 보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만나는 거라든가 일거수일투족 다 고정된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보는 게 있던가요, 고정되게 듣는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닥치는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생활입니다.

그렇게 여여하게 살라고 해서 그 뜻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편안하게 있지를 못하고 편안하게 놀지를 못해요. 꼭 놀아서만이 노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좀 더 알았으면 몸은 다사하나 마음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바쁘다면 짜증도 날 것이요, 화도 날 것이요, '이럭하고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외로움도 생기는 법이고, 여러 가지가지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몸도 병들고 마음까지도 병이 들죠,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몸속에 생명체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몸속에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하나로 돼서,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죠.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모두 인과성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그런다면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졸병들이 있어야만 그 육체가 움죽거릴 테니깐요. 그러니 그건 자동적인 인연이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짓는 인연입니다.

이것을 무시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고등 동물이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처럼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현재는 내 몸속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그 몸속에 주둔해 있는 것이 공했다는 것을 알고 나오는 대로 바로 거기다 입력을 되한다면 앞서의 팔자 운명이라고 울부짖고 앨 쓰던 그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잘 들으세요. 각자 여러분 속에 애당초부터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생각 하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행해 나가니까 이게 걸리고 걸리고 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다가오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요, 여러분 각자,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자가발전소요. 발전소에 에너지가 듬뿍 있다고 합시다. 전력이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쓰임 쓰임이 다가올 때 그 전력으로 다 쓰게 되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천하가 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그대로 통신이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겁니다.

밥을 지으려면 밥 짓는 전력이 조금 들어가겠죠. 모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자기 자신들이 대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행복도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관습에 의해서 조상의 탓을 하지 않으면 자기 팔자 한탄을 하고 또 남의 탓을 하고, '너 때문에 망했느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 허탕한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외려 그렇게 해서 분기가 돋아서, 모닥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병이 들죠. 네 탓 내 탓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금방에 넝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넝마전에 금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상점에 가서 사과하고 배하고 한데 섞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전부 끼리끼리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같은 것 중에서도 굵은 것, 중, 하 이렇게 골라 놨으면 놨지, 절대로 같이 섞어 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차원에 따라서 차원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차원끼리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모든 게 네 탓 내 탓 할 게 없이 아,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부모 자식지간에 살면서도 아, 이거는 모든 게 내 탓이로다 하고, 똑같은 사과끼리 만났으니 어디가 병이 들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 안 하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서로를 위해서 해 준다면 항상 화목할 것입니다.

이 마음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립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하지, 그렇잖으면 무엇 때문에 수도합니까? 그런데 모두가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짓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분해지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악업 선업을 받은 그 자체를 녹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으로서 마음의 조작입니다. 잘못되는 것도 마음이요, 잘되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의 조작이니만큼 마음으로서 서로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빛보다도 더 빨리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한 철 탤런트가 소임을 맡아서 막이 내릴 때까지 그 역을 맡아서 하듯이 우리 인생 한 철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애들도 소꿉장난하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돈을 만들어서 쓰던 장난감,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손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닙니다.

한 철 동안에 이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뿌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기는 한 생을 거쳐서 세세생생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자유권 말입니다. 이것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를 없애고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행과 말과 뜻을 갖는다면
모두가 귀하게 볼 것이며, 보이지 않는 법계에서도 전부 귀하게 볼 것입니다.

사는 게 지치고 힘들어요

질문 저는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배운 거 하나 없는 제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밤에 잠도 안 와서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사는 게 뭔지, 모든 게 허망하게만 느껴지고 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보면…, 나도 엊그저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고 바람이 쌩쌩 불고 날이 찼습니다. 그럴 때 바람 쐰다고 나가서 거닐었죠. 그런데 여기 온 것도 가는 것도, 또는 어떻게 하라는 그것조차도 없건만 글쎄, 그 이그러진 얼굴의 눈가엔 이슬방울이 지워질 사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뭣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서 그 잎새는 비바람에 으쳐진 상처가 아파서 불불 떨면서 땅에도 떨어져서 구르고, 나무에 붙어서도 퍼렁퍼렁 울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데마다 그런 짝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 내 가슴 속에선 남 보이지 않게 속으로 흐느끼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 사는 거나 짐승들 사는 거, 벌레들 사는 거, 나무들이 저렇게 사는 거, 모든 산천초목, 물, 바람, 흙, 사람, 벌레, 짐승 모두가 하나같이 그렇게 아픔을 느끼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읊으면서 걸었죠.

"아, 달 하나, 별 하나, 구름 한 점. 내 님 좇아서 이리저리 걷다 보니 앙상한 가지에 으쳐진 상처가 아파 우는 그 목소리는 내 귓가에 스쳐 가는구나. 어찌해서, 가고 오는 것도 없으련만,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련만, 바로 내 눈가에 눈물은 마를 날이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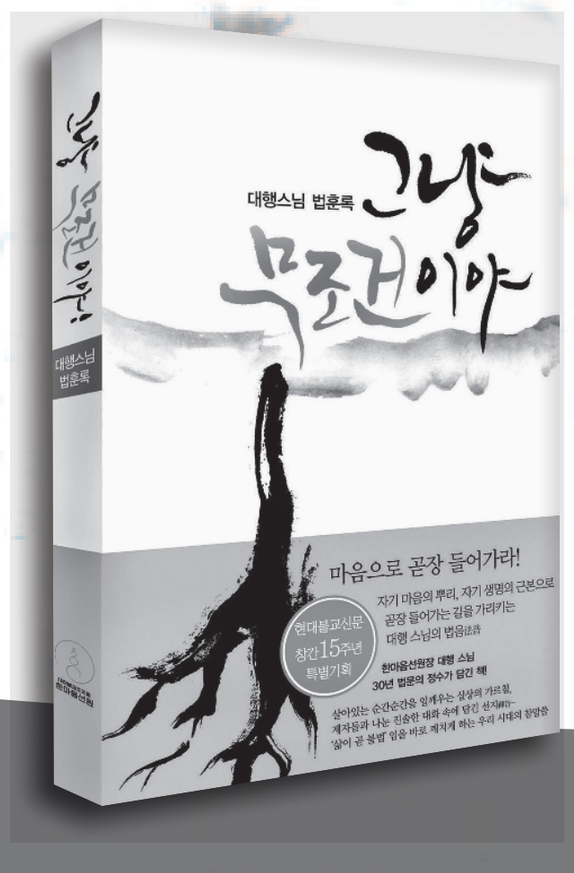
그러면서 혼자 그 찬바람을 누비 두루마기로 막으면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 길이요, 사람 삶의 한 길이라면, 벌레도 그 생명체가 있으니까 그대로 무댓방,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금방 붙잡혀 가서 솥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간이기에 불쌍한 것도 알고, 속상한 것도 알고, 잘못되는 것도 알고 잘되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씀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들을 아주 무시하고 이거는 한갓 허무한 몸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귀한 거를 모르면 다음에도 귀한 거를 모릅니다. 자기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기만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정말이지 귀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느 누가 그 아픔을 알아줍니까? 이 세상 한 철 살아가는 길면서도 짧고, 짧으면서도 그 긴 세월을 어느 누구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탁할 말은 항상 남의 입장에 서서, 나를 없애고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행과 말과 뜻을 갖는다면 모두가 귀하게 보며 이 세상천지가 다 귀하게 볼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법계에서도 전부 귀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령들도 전부 보이지 않는 데서 벌써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선처,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행하십시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현불 논단

땅, 집 그리고 붓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터전 아닌 재화축적 수단이 된
부동산 문제로 한국사회 '들썩'
보궐선거도 '부동산' 최대 이슈

붓다는 돈을 홀대하지 않았다
바른직업구하기 · 재물활용 등
올바른 재화 축적 방법을 전해

돈의 윤리 통한 하화중생 강조
붓다 경제학, 현사회의 해독제

'땅' 과 '집' 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다. 땅과 집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에 대한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이 땅을 휩쓸고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정책적인 논쟁보다는 땅과 집에 대한 상대방의 흠집 내기가 중심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원인은 땅과 집이 '살기' 위한 터전이 아니라 '돈 벌기' 의 제일 강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실 땅과 집은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재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어쩌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 이라고 회자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불화는 땅과 집의 재화 기능이 불공정하게 왜곡되었다는 데 있다.

붓다는 돈을 홀대하지 않았다. 재가자에 대해서는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전을 보면 붓다는 많은 장자와 왕들을 만난다. 이들은 중요한 포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붓다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교는 상인의 종교, 도시의 종교로 표현되기도 한다. 〈잡아함 48권 기능경〉에 나타난 붓다의 경제관을 살펴보자.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돈을 벌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물었다.

"우선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면 그것을 넷으로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즉 한 무더기는 먹고 사는 데 쓰고, 두 무더기는 생업을 위해 이윤을 얻는 데 쓰고, 나머지 한 무더기는 곤궁할 때를 대비해 저축해 두는 것이 좋다. 생업을 위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일에는 여섯 가지 직업이 있다. 〈중략〉 이러한 직업에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한다면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듯, 꿀벌이 꿀을 모으듯 재산이 불어날 것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자연히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그늘에 사람이 모이면 친형제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주면 목숨이 다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위 경전 내용을 보면서 필자는 붓다의 세간사에 대한 치밀한 관심사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불교 경제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태국의 프라유드 파토유 스님은 저서 〈붓다의 경제코칭〉을 통해 붓다의 경제관을 잘 제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한다. 불교 경전 어디에서도 가난을 칭찬하거나 장려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부 자체가 칭찬이나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부를 이루고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중요시했다. 문제는 부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할 때 생긴다. 붓다는 이미 2500년 전에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윤리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불교 경제학에서 말하는 '중도' 는 자기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리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며, 조화롭게 성장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붓다의 경제관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핵심이라고 보는 내용이 이미 다 제시되어 있으니 참으로 신기하다.

오늘날 온 지구촌이 물신주의에 빠져 돈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 돈이 가지고 있는 방편은 사라지고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 같다. 붓다는 돈의 윤리를 통해 하화중생과 자비 수행의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붓다의 경제관은 이 사회에 큰 해독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해독제를 어떻게 처방하여 쓸 것인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크게 다가온다.

社 說

현대인에 맞는 불교교재 '기대'

조계종 교육원이 새로운 불교개론 발간에 본격 착수했다고 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3월 30일 교육교재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새로운 교육교재 편찬은 승가교육기관 필수 교재인 '불교개론' 을 발간하는 것이다. 이는 올해 교육원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주요사업으로 소개됐다. 당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기존 개론서들은 옛날 언어로 쓰여져,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대적 언어와 사고로 정립된 불교개론서를 발간할 계획을 밝혔다.

편찬위원회가 논의한 편집 방향을 살펴보면 기대감이 든다. 불교의 핵심인 중도 · 연기적 가치관에 입각해 불교를 조망하고 선의 현대적 가치, 공동체, 생명사상, 사회실천 등을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각 장마다 주요 개념에 대해 알기 쉬운 경전 자료나 조사어록, 현대 인문학 · 자연과학 등을 예시 자료로 들어, 학인들의 논의 · 성찰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명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승가의 변화도 요구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인천의 스승이 될 스님은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에게 맞게, 시대의 언어로 가르쳐야 한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부단한 노력과 수행, 공부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대 맞는 승가교육 교재는 필요하다. 교육원이 시대 언어에 맞는 새로운 '불교개론' 을 발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만 하다.

새로운 '불교개론' 은 오는 12월 발간을 목표하고 있다고 한다. 계획한 대로 시대에 맞는 현대적 승가상 정립하고 일반 불자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개론서가 세상에 나오길 기대한다.

방역 사각지대에 큰 관심을

코로나 팬더믹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 속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의료지원이나 감염예방 등의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은 80만 가구에 달한다. 급격히 늘어난 빈곤층으로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최근 영등포 쪽방촌에서 진행한 마스크 나눔은 이러한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마스크 전달을 받은 대부분의 쪽방촌 주민들이 마스크가 없거나 면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구청과 복지관 등에서 나눠주는 마스크가 있지만, 며칠밖에 쓰지 못하는 1회용을 쓰고 나면 이들의 수입으로는 마스크 한 장 사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목욕까지도 한번 하기 힘든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소독 등은 언감생심일 것이다.

부처님은 사위성 좁은 골목길에서 분뇨를 수거하던 불가촉천민 니다이를 만났다. 니다이는 부처님에게 길을 비켜드리려다 넘어져 그만 똥물이 부처님에게 튀고 말았다. 부처님은 니다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함께 목욕을 하자고 하시며 부처님 가르침이 맑은 물과 같으니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였다.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 나눔의 대상에는 신분의 고하가 없다.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보면 빈곤의 사각지대가 수도 없이 많다. 코로나19로 빈곤이 확대되고, 감염의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소식을 듣는 불자들은 한번 쯤 더 고통 받는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떠올리며 자비나눔에 나서길 간절히 바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생각이 자신을 만든다

산골짜기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계곡을 따라 유연하게 흘러내리던 물이 흐르던 그 모습대로 얼음이 되었어요. 저 계곡의 얼음은 봄이 되어야 몸을 풀고 다시 흐를 것입니다. 견고한 얼음에서 유연한 물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신을 형성하고 삶을 결정짓습니다.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임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생각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생각들이 지속되고 다져지고 뭉쳐서 드러나는 것이 현재 자신의 모습입니다. 생각의 파편들이 쌓이고 모인 것이 자기의 역사이지요. 그 생각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깃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삶을 찬미하겠지요.

우리의 삶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잘 살고 못살고, 잘되고 못되는 것이 이 생각 하나에 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느 절대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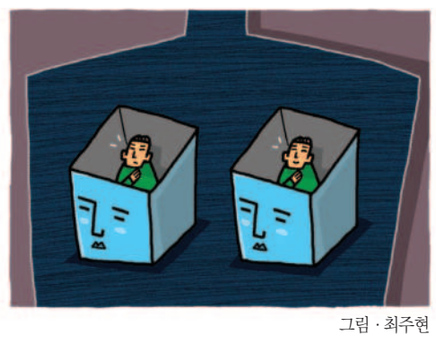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각자의 한 생각, 찰라의 한 생각이 지혜롭다면 행복이 오고,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나만이 지니고 있는 자가 보장(寶藏)이며 신통 자재한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마치 형제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이 세계는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그리는 것만이 현상계에서 그 모습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행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마음속에서 불행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불행이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른 채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탓합니다. 어떤 인생도 일생 내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면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불행하다' 는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누에가 자기 집을 짓지만 결국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보물을 품고 있는 창고와 같은데 왜 불행을 불러오는 생각으로 가득 찬 허접한 창고로 만들어버립니까? 실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의 결정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롭게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설계 속에는 반드시 서원을 지녀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속에 원을 세워야 합니다. 원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몫이자 자신의 고유한 의무입니다.

자신의 미래 모습이란 바로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한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함께 행복해요
세상을 바꾸는 동행同幸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탑



아침나갈때 저녁들어올때 합장하고 기도드리면 부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단타왕자가 창을 들고 고기잡는 어부로 변장하고 헤마말라공주는 정대(頂戴) 머리카락 속에 석가모니부처님치아사리를 숨겨 스리랑카로 전수했다.

★ 위 액자를 가정에 모셔 섬기면 부처님 가피를 받아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

부처님을 믿는 신도들이 천하에 무수히 많으나, 다비식(茶毘式)하지 않은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 1과가 세계 유일하게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에 봉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불자가 가히 얼마나 있겠는가?

인도에서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를 에워싼 잦은 분쟁 때문에 단타왕자가 가장 안전한 곳에 옮기려고 창을 들고 어부로 변장하고 헤마 말라 공주의 머리카락 속에 부처님 치아를 숨겨 스리랑카에 전해졌다.

스리랑카에서도 치아를 모시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한다고 하는 강한 믿음 때문에 왕권 투쟁이 빈번하였다. 그 후, 부처님 정기(精氣)로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되었고 국왕은 전력을 들여 국가에서 국보로 보호하고, 특별인연공덕 없이는 친견이 불가능한 위 사진을 보고 내용을 읽고 부처님 기리는 마음을 소중히 생각만 해도 부처님 가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잘 될 사람이 인연이 되어 부처님 치아가 모셔진 **사리탑 사진 액자를 가정에 모셔 섬기면 고통에서** 벗어나 축복을 받게 됨을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해인스님이 대사님한테 받는 장면.



스리랑카대사 Dr.A.Saj U.Mendis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 야기스리야 종정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대종사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 말와떼 종정



한·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방필석

인연 따라 가정에 모셔서 신앙 사진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정성으로 기도드리면 부처님 가피로 혜안이 밝아지고 재앙은 스스로 멀어져 질것입니다.

잘 될 인연은 사고팔 수 없고, 자기가 불심을 실천하여야 하며 비유하자면 농부가 봄에 씨앗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이 불심을 실천해야 복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셨다.

前)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대종사님 감사합니다.
現) 주한스리랑카대사님 Dr.A.Saj U.Mendis 감사합니다.
現) 스리랑카 불치사 말와떼종정님께 감사합니다.

잘될 사람이 묻는 전화번호
문의 : 02)735-8259, 739-8259

협력 :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주관 : 한국스리랑카문화교류협의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등용문빌딩 201호